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김소월과 서지마의 시 비교 연구

— 사랑과 자연, 현실인식을 중심으로 —



2016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장 효 정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김소월과 서지마의 시 비교 연구

- 사랑과 자연, 현실인식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조 동 구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장 효 정

장효정의 문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8월 26일



주 심 문학박사 남 송 우 (인)

위 원 문학박사 김 남 석 (인)

위 원 문학박사 조 동 구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7
3. 연구 방법과 범위	18
II. 1920년대 한·중 근대시와 김소월·서지마	22
1. 1920년대 한국 근대시와 김소월	22
2. 1920년대 중국 근대시와 서지마	30
III. 김소월과 서지마의 시 비교	43
1. ‘님’과 사랑에 나타난 정서	43
1) 이별과 한의 정서	45
2) 그리움과 애원의 정서	51
2. 자연 인식과 세계관	67
1) 자연과의 거리와 비극적 세계 인식	68
2) 자연 동화와 순응	75
3. 현실인식과 시적 대응	81
1) 고향 상실과 유교적 동포애	81
2) 현실 비판과 인도주의적 민족애	90

IV. 김소월과 서지마의 시의 성과와 의의 99

V. 결론 103

* 참고문헌 106



The Comparative Study of Lyricism of Kim so-wol
and Xu zhi-mo

- Pivot on Love and Nature, Awareness of a reality -

ZHANG XIAOTI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comparison of the lyricism between two poets: Kim so-wol(Korea) and Xu zhi-mo(China). As one of the outstanding representative poets of their own country, Kim so-wol and Xu zhi-mo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poetry.

Korea and China are both Asian countries, they share many similarities both in history background and contemporary literature. In 1919,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has failed, Korea, under the colonization by Japan, brought out the slogan “from force to literature reign”. This leads to some degree of freedom in many aspects such as publishing, public opinion and rally. In the meantime, some intellectuals began their exploration in the correspondences between reality and different culture. Under the influence of the Western European Literature, they created an opening for the ‘New Liter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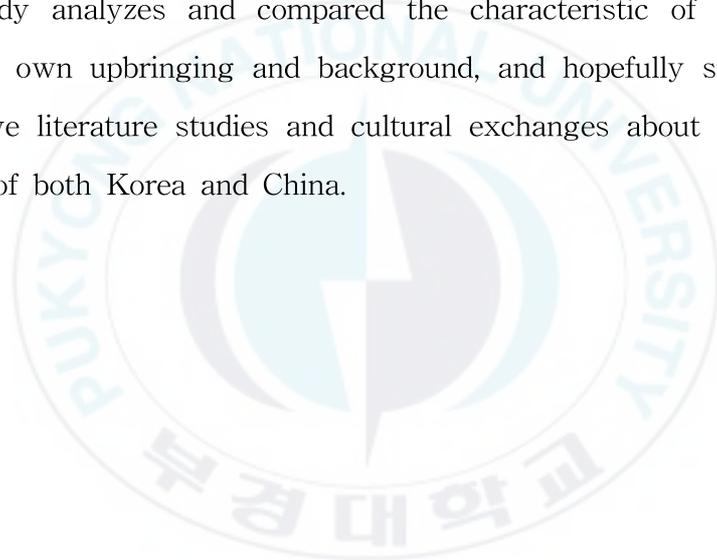
Although the May 4th Movement has failed, China's New Literature thought became active during this period, a certain period which was called The exploration of 'Modern Poetry Movement'. It freed their mind to express their feelings and emotions, and encouraged the Vernacular Movement in many ways. By this time, Modern Poetry poets were springing up all over China. One of the most notable group is called 'New Moon School', founded by Xu zhi-mo, had a tremendous impact on Modern Chinese Literature.

Kim so-wol is a poet whose creation is based on traditional Korean lyricism. His poetry is a milestone at his age. Kim so-wol was called "national poet", for his poetry reflected the anger and sorrow about the Korean subjugation and separation with his lover. As the founder of Chinese modern poetry, Xu zhi-mo played a decisive role. Affected by Western ideology and restricted by Chinese traditional feudal culture, Xu zhi-mo expressed very strong individualism in his pursuit for modernization. Moreover, his works have a strong perspective of romance. His early creation has beautiful rhythm and magnificent imagination, which was rich and flowery in diction and elegant in its artistic mood. And then, his deep thinking about the fate of his nation appeared in his late works. The differences and developments between his early and late words were deeply connected with the historical status.

Kim so-wol and Xu zhi-mo's life has many similar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y, South Korea became a colony after the invasion

by Japan, while, under the aggression of the Western countries, China turned into a semi-feudal and semi-colonial country. Experienced the unrest, Korea and China has become fertile ground for modern poetry. These two distinguished poet was born at the same time, but died very young. Although they have similar life experiences and history backgrounds, they are totally different in writing styles and techniques based on their works.

This study analyzes and compared the characteristic of their lyrics from their own upbringing and background, and hopefully supports the comparative literature studies and cultural exchanges about the modern literature of both Korea and China.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서정시인으로 활동한 김소월과 서지마의 시세계에 나타난 정서적 특징과 시세계관과 시적대응의 모습을 비교하여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시인은 한국과 중국의 근대시를 대표하는 서정시 시인으로서 두 나라의 근대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시인들이다. 특히 신문학 도입 이후 서구의 근대시가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발전의 진로를 제대로 정립하기 어려웠을 때, 두 시인은 전통적 서정과 새로운 시적 방법론을 접목해 근대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소월은 한국의 전통적 정서를 뛰어난 언어 감각으로 노래한 대표적인 서정시 시인이다. 그의 작품집은 당시 시단의 수준을 한층 향상시켰으며 한국시단의 이정표 구실을 하였다. 김소월은 흔히 국민시인이라 평가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다. 특히 그는 한국의 전통적인 한(恨)을 노래한 시인으로 유명하다. 또한 사랑하는 '님'에 대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 고향, 땅을 빼앗기고 조국의 상실과 절망을 드러내고 당대에 대한 저항의지를 표현했다. 반면 서지마는 중국 현대시의 발전에 대한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그는 중국 고시나 서양시의 우수한 점을 접목하며 중국의 현대시가 나아갈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해 주었다. 서지마는 서정시인으로 풍부한 상상력과 예민한 감수성을 사랑을 노래하고, 자연의 소중함과 도시 문명의 폐해를 표현하였다. 즉, 그는 사랑

에 대해서는 그리움의 정서를 노래하는 반면 조국과 관련해서는 반식민, 반봉건에 빠진 국민들에 있어서 저항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김소월과 서지마가 거의 같은 시대에 한·중 각 나라의 근대시의 초석을 다진 시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그들 시에 나타난 시의 정서적 특징과 시적 세계관 및 당대 현실에 대한 시적 대응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비록 김소월과 서지마가 국적은 달랐지만 모두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서정시 시인으로 시적 대상을 자연이나 사랑에 대한 관심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갔기 때문이다.

1920년대의 한국 시에서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시인은 바로 김소월이다. 김소월은 1920년부터 1930년까지 많은 시들을 발표하여, 한국의 영원한 민족시인 또한 국민시인으로 평가를 받아 왔다. 그 이유는 김소월이 한국 전통적 민족 정서를 노래하는 시인이었기 때문이다. 조연현은 “김소월은 왕성한 창작적 의욕과 그 작품의 전통적 가치를 고려해 볼 때, 1920년대에 있어서 천재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¹⁾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한을 노래한 시인이라고 평가를 받으며, 짙은 향토성과 전통적 서정으로 노래하였다.

김소월은 1925년 5월 『개벽』 (제59호)에 그의 시론을 발표하였는데 이 시론은 김억이 자신의 시에 대해 비판한 것에 대한 반론의 성격으로 쓰인 것이다. 그는 「시론」을 발표한 7개월 후에 그동안의 시편을 모아 자선시집 『진달래꽃』²⁾을 간행하였다. 『진달래꽃』을 발표한 후에 김동인은 김소을 카리켜 “조선 정조의 진실한 이해자요, 조선 감정의 진실한 재현자요, 조선말 구사의 귀재”³⁾로 극찬하였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민들로부터 많

1) 조연현, 『조연현 평론선집』,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5.

2) 김소월, 『진달래꽃』, 매문사, 1925.

3) 김동인, 「내가 본 시인-김소월군을 논함」, 『조선일보』, 1929.

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이다.

서지마는 생전에 세 권의 시집을 출간하였다. 이후 그가 죽은 이듬해에는 그의 지인들이 서지마가 남긴 창작시와 번역시를 모아서 유고 시집을 발표하였다. 소월이 『진달래꽃』을 발표한 같은 해에 중국시인 서지마는 『志摩的詩』을 발표한다. 『志摩的詩』에 대해 왕영생(王永生)은 “신시인 중 서지마가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⁴⁾”라고 평가하였다. 서지마는 풍부한 상상력과 예민한 감수성으로 사랑을 노래하고, 자연의 소중함과 도시 문명의 폐해를 표현한 시인이었다.

문학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학 작품을 쓴 시인이 처했던 시대적 상황과 시인의 전기적 삶에 대한 예비적 고찰이 필요하다. 한·중 근대사를 살펴보면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은 19세기에 조선은 외세의 침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주적 근대화의 길을 모색해야만 하였다. 위기에 맞서 대응하는 한국 민족의 움직임은 척사운동, 개화운동, 농민운동 등 대체로 세 갈래의 흐름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894년에 농민 전쟁이 좌절되면서 일제 제국주의열강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침략 당했으며 1910년 국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중국의 경우는 1840년대부터 잇따라 자본주의 열강이 중국을 침략하였다.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과 모욕 속에서 중국은 신속하게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빠져들었다. 아편전쟁에서부터 1919년 5·4운동까지의 80년간은 중국 인민은 끊임없이 고조되는 반제(反帝), 반봉건(半封建) 투쟁 속에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다. 한·중 근대사를 다시 정리해 보면 한국은 일제 침략으로 식민지가 되었고 중국은 반식민지로, 반봉건 사회가 되었다.

1919년은 한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난 해로 중국에서는 5·4운동이 일어났다. 한국의 3·1운동은 결국 실패하였고, 이후 일본은 ‘문학통치’를 표방

4) 永生, 「徐志摩論」, 『中國現代文論選 1』, 貴州人民出版社, 1984.

하게 된다. 이 무렵을 전후하여 한국에서는 각종 문예지와 종합지가 우후
죽순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 결과 한국은 문학적인 면에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김소월은 시대적 상황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사라져갈 때 서구모방적 취향에서 벗어나 전통적 소재와 율격,
그리고 주제로 전통적인 시를 발표해 민족문학과에 속하는 시인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5·4운동도 역시 실패로 끝났지만, 이 혁명운
동을 계기로 중국 신문학이 확정되었다. 5·4운동 이후 작가들은 개성의 해
방뿐만 아니라 연애·혼인의 자유도 쟁취하였다. 또 문학혁명의 주역을 맡았
던 문인들이 여러 단체로 뭉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서지마는
낭만주의 ‘신월파’(新月派)를 문단으로 등장하여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신월파는 음악미·색채미·조형미등 三美를 강조하면서 서정성을 추구하는 것
을 목적으로 신비하고 진솔한 시를 쓰고자 하였다. 서지마는 신월파의 핵
심 인물로 활동하면서 영미에 유학했던 지인들⁵⁾을 모아서 애정과 자아의
동일시를 추구하는 서구 낭만주의 사상을 수용하여 시를 창작하였다. 이러
한 서구문학의 영향은 중국 고시와 서양시의 우수한 점을 접목하였기에 전
통 시 형식의 구속에서 벗어난 현대시의 밑바탕이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소월과 서지마는 한·중이 근대화되어 가는
격동기에 그들이 느끼고 생각한 바를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켰다. 두 시인이
태어날 당시 한국과 중국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던 시기였
다.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각각 한국과 중국에서 활동했던 시인으로 현대시
발전에 큰 역할을 발휘한 인물이다. 두 시인은 한·중 양국이 모두 정치적·
사회적·경제적으로 격변의 시기에 활동했다는 점, 비참한 역사적 현실을

5) 신월파를 대표하는 시인 문일다(一多,1899~1946), 주상(朱湘,1904~1933), 임휘음
(林徽音,1904~1955) 등 네 시인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문학작품에 형상했다는 점에 있어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두 시인은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분명 그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 또 다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두 시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본고는 연구가치가 있을 것이다.

김소월과 서지마의 삶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시대적 상황을 보면 당시 한국은 일제의 침략으로 인하여 식민지 사회로 전락되었고, 중국은 일본과 서양 열강들의 침략으로 반식민지, 반봉건이라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같다. 두 시인의 생애를 보면 시대적 사회 혼란을 겪었고 젊은 나이로 요절하였다는 점이 같다. 그러나 비슷한 역사적 배경과 생애를 지니고 있는 두 시인의 문학작품을 보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김소월은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를 뛰어난 언어 감각으로 노래한 반면 서지마는 유학을 통해 서구 문학과 문화적 경험을 받아들여 작품 활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현대문학 비교 연구는 과거 전통문학의 비교 연구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본고는 문화와 역사가 서로 다른 두 나라지만 같은 시대를 겪은 시인들의 작품들을 비교해 보면서 동질성과 차이성을 찾아보고 더 나아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공존하는 자세를 살펴 한·중 비교연구가 더욱 더 활성화되는 데 일조하려한다.

본고는 본론에서 김소월과 서지마의 시에 있어서 사랑, 자연, 현실인식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것이다. 두 시인은 서로 다른 영역의 양상도 있지만 주제 내지 정서는 두 시인에게 있어서 시적 세계관과 방법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고가 두 시인의 사랑, 자연, 현실인식을 함께 살피는 것은 시대상황과 관련된 당시 시대의 시 의식을 살피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두 시인은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각국의 개혁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근대 시단을 시인이다. 이들의 시편을 살펴보고 비교를 통해서 한·중 두 나라의 민족 정조와 문화, 문학을 엿볼 수 있는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양국의 문학적인 공통점과 차이점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한·중 서정시의 대표적 시인이 김소월과 서지마의 시를 사랑과 자연 그리고 현실인식으로 나누어 비교 고찰하려 한다. 이것은 한·중 문학을 바탕으로 양국의 민족이 지닌 정조와 문화 그리고 문학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선행 연구사 검토

한국과 중국의 현대시사에서 김소월과 서지마 만큼 주목을 받은 시인은 드물다. 김소월은 1925년에 『진달래꽃』으로, 서지마는 같은 해에 『志摩的詩』이라는 한 권의 시집으로 한국과 중국 대표하는 시인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소월은 한국의 전통적인 한의 정서, 사랑하는 님을 잃은 상실감과 그로 인한 그리움을 많은 작품 속에 표현하여서 흔히 민족시인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서지마는 중국의 신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시인으로서 그의 작품은 널리 알려져 있다.

1920년 19세의 나이에 한국 시단에 등장한 김소월은 『창조』를 통해 「낭인의 봄」, 「그리워」, 「춘강」 등을 발표했고, 『학생계』에 「먼 후일」, 「거친 풀 허트러진 모래동으로」 등을 투고하였으며 김억의 추천을 받았다. 이후 그는 『동아일보』와 『개벽』, 『영대』 등을 통해 많은 양의 작품을 발표했다. 1922년 한 해 동안 발표한 그의 작품 수는 42편에 이른다. 그의 대표작 「진달래꽃」을 비롯한 대다수의 작품이 이 시기에 발표되었다.⁶⁾

김소월의 시에 대한 연구는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그는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흔히 ‘민족시인’이라고 부른다. 오세영은 “한국 현대시사에서 소월만큼 많은 독자들에게 많이 읽힌 시인은 아직 없을 것이다”⁷⁾라고 평가하였다. 김소월은 독자층을 넓게 포용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김소월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6) 김용직 주해, 원본 김소월 시집, 깊은 샘, 2007. : 김열규 외, 『김소월 연구』, 새문사, 1986.

7) 오세영, 『김소월, 그 삶과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해방 이전의 연구는 김소월의 생애에 관한 단편적인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해방 이후 김소월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그의 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기존의 성과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먼저 기존의 연구는 전기적 연구, 주제론적 연구, 형식적 특징과 구조에 관한 연구, 창작원리에 관한 연구, 그리고 김소월과 비교 연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첫째, 김소월 시인이 살았던 시대적상황과 그의 삶과 관련된 전기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해방 이전에 이루어진 김소월 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단편적인 연구나 시인의 삶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김소월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사로 김소월의 숙모 계희영⁸⁾의 증언과 스승 김억⁹⁾의 회고가 유명하다. 특히 계희영은 김소월의 성장과정과 가족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였다. 그녀는 어린 소월에게 많은 설화와 민요를 들려주었다고 언급해 소월의 전통 지향적 시세계를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 김억은 여러 편의 회고를 통해 김소월의 개인사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다. 김억은 소월의 가치를 한국말의 고유한 미감을 잘 살린 것과 민요시 창작으로 꼽았는데, 이러한 평가는 이후 김소월의 시를 연구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박종화¹⁰⁾는 김소월의 시적 재능으로 수단 있는 기교와 아름다운 멜로디, 흐르는 애수, 서정적인 어휘 등에 주목하였다. 이후 김소월의 전기 연구는 이광수, 주요한, 김기진¹¹⁾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해방 이후

8) 계희영, 『내가 기른 소월』, 장문각, 1969.

9) 김 억, 「김소월의 행장」, 『신동아』, 동아일보사, 1935.

_____, 「소월의 생애와 시가」, 『삼천리』, 삼천리사, 1935.

_____, 「요절한 薄倅시인 김소월에 대한 추억」, 『조선중앙일보』, 삼천리사, 1935.

_____, 「소월의 생애」, 『여성』, 박문출판사, 1939.

_____, 「김소월의 추억」, 『박문』, 박문출판사, 1939.

_____, 「기억에 남은 사람들」, 『조광』, 조선일보사, 1939.

10) 박종화, 「문단 1년을 추억하야」, 『개벽』, 개벽사, 1923.

11) 이광수, 「우리 문예의 방향」, 『조선문단』, 조선문단사, 1921.

주요한, 「문단시평」, 『조선문단』, 조선문단사, 1924.

에는 소월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으며 연구도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김소월의 생애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정리되었지만 새로운 자료나 제조자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둘째, 정서나 의미에 초점을 두는 주제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정서적 측면 또는 의미론적인 측면에 대해서 검토하자면, 김소월의 시를 민족의 ‘한’과 ‘고향상실의식’을 다룬 논의, 부재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슬픔을 다룬 논의, 또한 소극적 현실 태도를 비판한 논의, 저항적 시대인식을 다룬 논의, 부재와 상실 문제를 다룬 논의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먼저 김소월의 시를 ‘한’으로 파악한 김동리¹²⁾는 “영원히 메꾸어질 수 없는 소월의 감정을 ‘정한(情恨)’이라 불러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서정주¹³⁾는 역시 주된 정서를 전통적인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하희주¹⁴⁾는 소월이 “부지불식간에 형성되어온 이 땅의 민족 정서의 정통적 계승자”임을 설파하였다. 백승철¹⁵⁾도 소월 시가 고려가요를 이어받으며 “민족적 원형을 첨예화한다.”고 유사한 관점으로 소월시를 조명하고 있다. 한편 김종은¹⁶⁾ 프로이트의 ‘비애’ 개념을 원용하여 한(恨)의 정서를 분석하였다. 오세영¹⁷⁾도 김종은과 견해를 같이 하며 한(恨)을 이중적인 갈등구조를 가진 역설의 감정으로 파악하였다. 김소월의 핵심 주제를 이별에서 비롯된 한(恨)으로 파악한 연구자 조동구¹⁸⁾는 소월 시의 한(恨)의 정서가 전통적 가족의식에서 출발하여 집 없음 의식으로 심화된다고 말한 뒤 이것은 김소

김기집, 《현시단의 시인》, 『개벽』, 개벽사, 1925.

12) 김동리, 『문학과 인간』, 청춘사, 1952.

13) 서정주, 「소월 시에 있어서의 정한의 처리」,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59.

14) 하희주, 「전통의식과 한의 정서」,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60.

15) 백승철, 「한의 시학」, 『심상』, 심상사, 1974.

16) 김종은, 「소월의 병적-한의 정신분석」, 『문학사상』, 문학사상사, 1974.

17) 오세영, 「한의 논리와 그 역설적 의미」, 『문학사상』, 문학사상사, 1976.

18) 조동구, 「김소월론-시에 나타난 소월의 의식세계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1.

월의 비극적 삶과 관련되어 그의 소극적 개인주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광혜란¹⁹⁾은 국권 상실이라는 비극적 시대를 역사부터 출발하여 소월 시에 있어서 한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한의 원인은 무엇인지 깊이 고찰하였다. 김영화²⁰⁾는 소월시의 한은 그의 가정사와 시대, 더 멀리는 민족의 전통적 정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 소월 시의 새로운 측면을 조명하는 글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송명희²¹⁾는 소월을 오로지 전통시인, 민요시인으로 평가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월 시의 운율과 한의 정서는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 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최하림²²⁾도 미발표 작품 및 생전에 남긴 시에 주목하면서 소월의 시들이 반드시 패배주의적 감상에 젖어있는 것은 아니며 압박받고 있는 민족으로서의 저항적 문제성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이명재²³⁾도 소월 시에 나타나는 저항적인 시대 인식에 주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에 대한 논의가 내용으로 다룬 논의²⁴⁾, 소극적 현실 태도를 비판한 논의²⁵⁾, 저항적 시대인식을 다룬 논의, 부재와 상실 문제를 다룬 논의로 나누어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소월 시의

19) 광혜란, 「김소월 시에 나타난 한의 정서 연구」,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2011.

20) 김영화, 「김소월 시에 나타난 한의 미학 연구」, 중부대 석사학위논문, 2001.

21) 송명희, 「소월시에의 반성」, 『세계의 문학』, 민음사, 1979.

22) 최하림, 「식민지 시대 시인의 초상」, 『한국현대시문학대계6-김소월』, 지식산업사, 1980.

23) 이명재, 「소월 시의 심층과 시대 인식-소월의 재조명」, 『식민지 시대의 시인 연구』, 시인사, 1985.

24) 김동리, 앞의 책.

하희주, 앞의 책.

서정주, 앞의 책.

박두진, 「김소월의 시」, 『한국현대시론』, 이조각, 1973.

백승철, 앞의 책.

오세영, 앞의 책.

조동구, 앞의 논문.

25) 박종화, 앞의 책.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

윤영천, 『소월 시의 현실인식』, 한길사, 1982.

새로운 측면을 조명하는 글들이 많이 발표되었다.²⁶⁾

셋째, 향토적 어휘와 운율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특성과 구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김소월 시의 형식적 특징과 구조를 밝히려는 연구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먼저 김소월 시의 율격적 특징에 주목한 논문으로는 성기옥이 연구가 있다. 성기옥²⁷⁾은 소월 시에 나타난 기본 율격을 분석하여 총량 3보격으로 규정한 뒤, 율격과 의미의 상호작용을 살피기 위해 율문표출의 효과와 감정적 율문표출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서우석²⁸⁾은 김소월의 시가 7·5조의 기본틀을 지키면서 내부에서 섬세한 리듬의 변화를 추구한 양상을 고찰하였다. 조동일²⁹⁾은 전통적인 3보격의 계승과 변형이라는 점에서 김소월의 율격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며, 조창환³⁰⁾은 음보 대신 율마디, 율도막, 율행 등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김소월 시의 운율적 자질을 불균등 세마디 율격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음성적 질서의 심미적 쾌감을 유발하는 운과 음상이 주는 정서적 효과, 리듬의 선율적 아름다움 등을 검토하였다.

넷째, 창작방법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김인환³¹⁾은 소월의 시 전부를 한 편의 연극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작품 속에 나타난 화자의 특징과 발화에 주목하여 고찰하였다. 이중희³²⁾는 소월 시의 창작방법의 원리를 어법 선택, 형태구성과 배경설정의 방법 등으로 나누어서 본격

26) 최하림, 앞의 책.

이명재, 앞의 책.

최동호,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물의 심상과 의미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81.

27) 성기옥, 「소월시의 율격」, 신동욱 편, 『김소월』, 문학과 지성사, 1980.

28) 서우석, 『시와 리듬』, 문학과 지성사, 1981.

29) 조동일, 「현대시에 나타난 전통적 율격의 계승」, 『우리문학과와의 만남』, 기린원, 1988.

30) 조창환, 「김소월시의 운율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6.

31) 김인환, 『상상력과 원근법』, 문학과 지성사, 1983.

32) 이중희, 「김소월 시의 창작방법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4.

적인 연구를 펼쳤다. 김소정³³⁾은 텍스트의 창작 원리를 밝혀 김소월이 지향하는 작품세계의 특질을 규명했다.

이외에 김소월과 당대 시인들과의 비교 연구로는 김소월과 이상, 김소월과 한용운, 김소월과 백석을 비교 검토한 것이 있다. 먼저 이봉신³⁴⁾의 비교연구는 수용미학적 문학연구의 관점에서 소월과 이상의 시가 발표 당시의 독자들로부터 지금의 독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지 살폈다. 그 다음으로 김소월과 한용운을 비교한 연구의 성과를 보면, 유근조³⁵⁾는 소월과 만해 시에 나타나는 전통적 요소에 집중하여 서술하였다. 신달자³⁶⁾는 소월과 만해 두 시인 시의 여성 화자, 여성지향적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해원³⁷⁾은 두 시인 시의 비유구조를 밝히고 텍스트에 드러나는 욕망의 존재방식을 검토하였다. 이효나³⁸⁾는 두 시인의 시에 나타난 ‘님’과의 이별에 대해 비교하였다.

이상으로 선행 연구사 검토를 통해서 김소월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소월의 작품에 대한 연구가 그가 살아 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론과 시각으로 나누어 다채롭게 연구되었으며 연구 성과 또한 상당히 축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중국 서정시 시인 서지마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자.³⁹⁾ 서지

33) 김소정, 『김소월 시 연구』, 경상대 박사학위논문, 2008.

34) 이봉신, 「김소월과 이상의 수용미학적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1992.

35) 유근조, 「소월과 만해 시의 비교 연구-전통적 맥락을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84.

36) 신달자, 「소월과 만해 시의 여성지향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92.

37) 이해원, 「한용운 김소월 시의 비유구조와 욕망의 존재방식」,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6.

38) 이효나, 「김소월과 한용운의 시 비교 연구」, 가천대 박사학위논문, 2014.

39) 김종철, 「서지마 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5.

도현경, 「서지마 산을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2000.

왕혜륜, 「한국의근대시인 김소월과 중국 근대시인 徐志摩에 대한 비교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75.

박찬혜, 「서지마 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86.

마의 작품에 대한 중국에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서지마는 중국의 신시 창작에 중요한 성취를 이룬 시인이고 중국의 격동기 한 가운데에 그의 자취를 남기고 갔다. 서지마는 신시 창작에 있어서 외래적 현대지향성이 강했지만 그가 가진 문학적, 심미적 맥락은 중국의 고전의식과 더불어 여전히 전통과 맞닿아 있었다.⁴⁰⁾

그러나 1949년 이후, 중국에서는 문학을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이분법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모순(茅盾)이 계급의 관점에서 서지마를 ‘중국의 부르주아 시인’이라고 부르고, 심지어 1978년 복단대학 중문과에서 엮은 『중국현대문학사(中國現代文學史)』에서는 그의 시를 ‘반동시(反動詩)’라고 명명하며 혹독하게 비판하였다.⁴¹⁾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문학사를 새로 정리하면서 서지마의 시는 재평가를 받았고 작가의 생애를 다룬 평전도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의 시에 대한 연구는 갈수록 다양해졌는데 그는 신월파의 대표 주자로 분류되었고, 당시 신시 창작에서 비교적 높은 성취를 이루었던 문일다(聞一多)와 비교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서지마의 연구가 인물평전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났는데, 모신(毛迅)⁴²⁾은 『서지마론고(徐志摩論稿)』에서 서지마의 문학관을 체계

박선희, 「서지마 시의 예술성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9.
 이옥연, 『곽말야·서지마문학의 「근대의식」 비교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5.
 이소정, 「서지마 시의 상상세계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3.
 구광범, 『徐志摩의 생平和思想簡論』, 화동사범대 박사학위논문, 1996.
 권혜경, 「서지마문학연구-주제사상과 예술성을 중심으로-」,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2002.
 최용노, 「서지마 애정시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3.
 최종옥, 「서지마 산문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97.
 정미영, 「서지마 시의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2010.

40) 陳琳, 「한·중 근대시에 나타난 노장사상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13.

41) 邵華強, 「徐志摩의 反動詩歌」, 『中國現代文學史上冊』 第二篇, 知識產權出版社, 2011.

42) 毛迅, 『徐志摩論稿』, 四川大學出版社, 1991.

적으로 내용의 줄거리를 추려내고 그의 시를 영국 문학과와의 관계 속에서 연구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가 서지마의 문학관에 대한 연구의 시발점이 될 수는 있겠으나 다소 추상적으로 접근해 구체적인 내용의 서술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후에는 영국 시와 서지마 시를 비교하는 소논문이 많아졌다.⁴³⁾

서지마 연구의 경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황수기(黃修己)⁴⁴⁾는 『중국 현대문학발전사(中國現代文學發展史)』에서 서지마 시의 예술적 풍격을 “여성적이며 부드러운 맛에 접근되어 있다”고 보면서 서지마의 시가 “미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광명의 추구였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즉 서지마가 추구한 이상은 비록 애정의 곁웃을 입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광명에 대한 열렬한 사모와 기대, 고난을 두려워 지 않는 추구 그리고 실망, 비판, 낙심의 정서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그 후 서지마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서지마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시 뿐만 아니라 산문에서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도 서지마의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먼저 서지마의 생평화 사상과 시 창작 과정 연구⁴⁵⁾, 형식과 내용 방면에 대한 연구⁴⁶⁾, 시의 음악미(音樂美) 연구⁴⁷⁾, 주제·소재·현실과의 대응자세 연구⁴⁸⁾, 서지마의 애정시 연구⁴⁹⁾, 그리고 서지마 문학 전반의 주제사상과 예술성을 다룬 연구⁵⁰⁾가 있다. 박찬혜의 「서지마 시 연구(徐志摩詩 研究)」 서지마의 “신월”에서의 활동을 살펴보고, 서지마의 시를 주제, 소재, 대응자세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여 성령면(性靈面), 의상면(意象面), 음률면(音律面)으로 나누어 작

43) 介民, 『類同研究的再發現—徐志摩在中西文化之間』,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44) 黃修己, 高大中國語文研究會譯 『中國現代文學發展史』, 범우사, 1991.

45) 구광범, 앞의 논문.

46) 김종철, 「서지마 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5.

47) 김상호, 「서지마 시 연구」, 臺灣逢甲大 석사학위논문, 1992.

48) 박찬혜, 앞의 논문.

49) 최용노, 앞의 논문.

50) 권혜경, 앞의 논문.

품 감상을 위주로 연구하고 있다. 그 외의 비교 연구는 이옥연⁵¹⁾이 곽말약과 서지마의 근대의식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이 둘의 작품 전체를 다룬 연구가 있다. 류소녕⁵²⁾은 백석과 서지마의 작품 속에 드러난 사랑과 연민에 대해 비교 분석했다. 이 연구는 두 나라의 비슷한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접근해 두 시인의 연인에 대한 사랑을 담은 시편들을 대상으로 작품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앞에 연구 성과를 보면 김소월이나 서지마에 대한 각각 나름대로의 연구 성과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두 시인을 서로 비교한 연구 성과는 총 다섯 편만 진행되었다. 최초의 연구는 1975년에 왕해륜⁵³⁾의 「한국근대시인 김소월과 중국 근대시인 서지마에 대한 비교연구」가 있다. 그는 먼저 한·중 시대개관을 서술하면서 두 시인의 시사적 생애를 다루었다. 그리고 김소월과 서지마를 동시대 역사적 배경 하에서의 작품세계를 살펴보았다. 그는 소월시의 문학적 특성으로 영원한 한의 미학, 민요적 특성, 향토성-민속적이고, 토속적이며,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작품-이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자는 서지마에 대해서는 지위와 경향, 의상의 미학, 형식과 기교, 인도적 이상주의의 추구 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는 두 시인이 같은 시대에 태어나 활동했다는 점으로 비교 연구를 다루었다. 이 연구는 김소월과 서지마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비교 연구로서, 한·중 근대시에 비교 연구가 미흡한 상태에서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또 다음 연구자들에게 김소월과 서지마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두 시인을 제각각 언급하여 연구되어 두 시인의 시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의 비교가 미세하다.

51) 이옥연, 앞의 논문.

52) 류소녕, 「백석과 서지마 시에 나타난 사랑과 연민 비교」, 아주대 석사학위논문, 2015.

53) 왕해륜, 앞의 논문.

두 시인에 대한 비교 연구로서 더 자세하게 두 시인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아쉬운 점을 남겼다.

다음으로 두 시인의 작품에 나타난 자연과 사랑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한 만정정⁵⁴⁾의 논문이 있다. 그는 자연과 사랑을 중심으로 두 시인을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는 자연과 사랑뿐만 아니라 두 시인이 처했던 일제강점기 즉 1920년대의 시대상이 반영된 집 잃고, 나라를 상실한 아픔의 시들도 많이 있는데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

또한 가구⁵⁵⁾는 두 시인의 작품을 낭만적인 상상력의 측면에서 비교 연구했다. 그는 두 시인의 성장과정과 시세계, 두 시인의 시에 담긴 낭만적인 상상력의 요소들을 주로 서정적인 내용과 음울적인 내용을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김소월의 낭만적 상상의 시세계와 서지마의 시의 사랑 정신을 중심으로 두 시인의 시가 지닌 낭만적인 상상력의 요소들을 나열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사랑, 전통, 죽음, 자연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서 두 시인의 낭만적인 상상력의 이유를 제시해 주었다.

그 다음으로 진함⁵⁶⁾은 두 시인의 활동하던 1920년대에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배경과 김소월과 서지마를 양국의 문단에 큰 영향을 끼친 시인으로서 각 시인의 문학세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작품에 나타난 ‘슬픔의 정서’와 ‘저항의 정신’을 담고 있는 시어에 내재한 감정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해 차이점의 원인을 제시하였다.

한편 여정⁵⁷⁾은 김소월과 서지마를 한·중 대표적인 서정시를 쓴 작가라는 점을 바탕으로 그들의 창작 배경과 시세계를 살펴보았다. 두 시인의 작품

54) 만정정, 「김소월과 서지마의 시세계 비교연구-자연과 사랑을 중심으로」,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9.

55) 가 구, 「김소월과 서지마의 비교연구-낭만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10.

56) 진 함, 「김소월과 서지마의 서정시 비교연구」, 대전대 석사학위논문, 2012.

57) 여 정, 「서지마와 김소월 시의 비교 연구」, 덕성여대 석사학위논문, 2015.

에 나타난 ‘자연물’, ‘애정관’, ‘저항’의 정서를 나누어서 두 시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두 시인의 시작품을 한국어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습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두 시인의 시에 나타난 현실 인식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였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본 논문은 더욱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이상 김소월과 서지마에 대한 비교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총 다섯 편의 연구 성과가 이루어져 있다. 연구 성과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가 두 시인에 대한 개별연구가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시인의 비교연구를 살펴보면 1975년부터 시작하였고 2000년 이후부터 다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김소월과 서지마의 생애와 시대배경을 바탕으로 두 시인의 작품을 연구한 비교 연구, 운율에 대한 비교 연구, 정서적 특징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나누어서 분석과 비교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두 시인에 대한 생애와 시작품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당히 축적되고 있었으나 두 시인에 대한 비교 연구는 부족하였다. 뿐만 아니라 두 시인이 시적대상을 자연이나 사랑에 대한 관심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대응 문제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이에 본고는 두 시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작품에 담긴 사랑, 자연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인식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및 범위

김소월과 서지마의 삶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두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탄생했던 두 시인이 생활고와 사회적 혼란을 겪었고 젊은 나이로 요절했다. 작품으로 보면 두 시인의 차이점을 김소월은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를 뛰어난 언어 감각으로 노래하였고 서지마는 유학을 통해서 서구 문학과 문화적 경험을 받아들여 작품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동시대의 사회·문화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근대 문학의 대표 시인이 되었다. 두 시인의 시편을 살펴보고 비교를 통해서 한·중 두 나라의 민족 정조와 문화, 문학을 엿볼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또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양국의 문학적 공통점과 차이점도 찾아낼 수 있다.

본 연구는 비교문학적 방법론에 의해 전개될 것이다. 비교문학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16년 프랑스의 노엘과 라플라스가 공동으로 편집한 『비교문학의 강의』라는 책에서였다.⁵⁸⁾ 그 이후로 비교방법연구는 문학연구의 중요한 한 영역이 되었으며, 특히 서로 다른 나라의 두 작가를 비교하는 경우 영향관계의 연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왕상위안은 비교 문학의 연구를 전파연구법, 영향분석법, 평행관통법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⁵⁹⁾ 첫 번째 방법은 ‘전파(傳播)연구법으로’ 비교문학의 대표적인 실증연구 방법이며, 프랑스학과의 역사학 연구방법과 현대의 ‘전파학’ 방법을 종합한 연구방법이다. 전파연구법은 문학사의 역사사실들을 세부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각종 문헌과 자료들을 통해 고증하고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58) 박성창, 『비교문학의 동전』, 민음사, 2009.

59) 왕상위안 지음, 문대일 옮김, 『비교문학의 열쇠』, 한국학술정보, 2011.

두 번째 방법은 ‘영향분석(影響分析)연구법’으로 문학작품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며, 이 연구법은 비교문학과 문학비평의 긴밀한 결합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영향연구의 목적은 작가와 작품의 과문학적 상호 영향의 법칙을 연구하고, 작가가 받아들인 외국 문학의 영향과 그 영향의 초월을 밝히며, 받아들인 외국의 영향과 예술의 독창성 간의 변증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세 번째 방법은 ‘평행관통(平行貫通)법’으로 이는 직접적인 ‘전파’의 사실과 ‘영향’관계가 없는 문학현상 간의 비교연구에 적합하다. 여기서 ‘평행’이란 사실관계가 없는 다른 문학현상 간의 유사성과 상호 보조성을 밝히고, 서로 대조를 하는 연구를 뜻하며, ‘관통’이란 여러 문학 현상을 통틀어 보았을 때,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관계를 뜻한다.⁶⁰⁾

비교문학의 이론에 의하면 1970년대 이전까지는 두 나라의 문학, 작가, 작품을 관련짓는 영향과 수용에 있어서 실증적인 자료가 뒷받침되는 경우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이 일반적이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영향에 대한 개념 규정을 신축성 있게 규정함으로써 비교문학에서의 영향의 영역을 보수적인 측면에서 진보적인 측면으로 개방하였다. 말하자면 두 작품 사이에 일대일로 대응되는 사실적인 요소가 없더라도 역사적이고 전기적이고 사회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을 주장함으로써 두 작품 사이의 유사성을 추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본 논문은 평행관통법으로 비교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평행연구’는 비교문학의 연구방법 중 하나로서 서로 간의 사실관계가 없는 과문학(跨文化) 문학현상에 대해 비교연구를 할 때에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⁶¹⁾ 이전의 수용과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했던 실증주의적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

60) _____, 위의 책, 45~46면.

61) _____, 위의 책.

고 두 나라의 문학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상호 비교를 진행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하는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김소월의 경우,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 62)에 수록된 시와 미수록 작품 및 유고시들은 김용직 편 『김소월전집』 63)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서지마의 경우에도 서지마 시집 『지마의 시』 64), 『피렌체의 하룻밤』 65), 『맹호집』 66), 유고 『운유』 67)에 수록된 시와 운계 편 『지마의 시』 68)를 대상으로 한다. 서지마의 번역시는 이경하 편 『쉬즈모 시선』 69)을 기본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김소월과 서지마의 시편들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우선 I 장에서는 먼저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후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제시한다.

II 장에서는 예비적 고찰을 위해 먼저 한국의 1920년대의 시대상황의 특징과 김소월의 생애 및 시 창작 활동의 과정을 살펴본 후 같은 시기에 있는 중국의 시대상황을 알아본 후, 서지마에 대한 전기적 삶과 시세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III 장에서는 두 시의 시를 분석함으로써 정서면에서 출발하며 세 가지로 설정하고 분석할 것이다. 김소월의 시에 나타난 이별과 한의 정서, 자연과의 거리와 비극적 세계인식, 고향 상실과 유교적 동포애를 분석할 것이다. 서지마의 시에 나타난 그리움과 애원의 정서, 자연 동화와 순응,

62) 김소월, 『진달래꽃』, 매문사, 1925.

63) 김용직, 『김소월전집』,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64) 서지마, 『지마의 시』, 신월서점출판사, 1925.

65) _____, 『피렌체의 하룻밤』, 신월서점출판사, 1927.

66) _____, 『맹호집』, 신월서점출판사, 1931.

67) _____, 진몽가 편, 『운유』, 신월서점출판사, 1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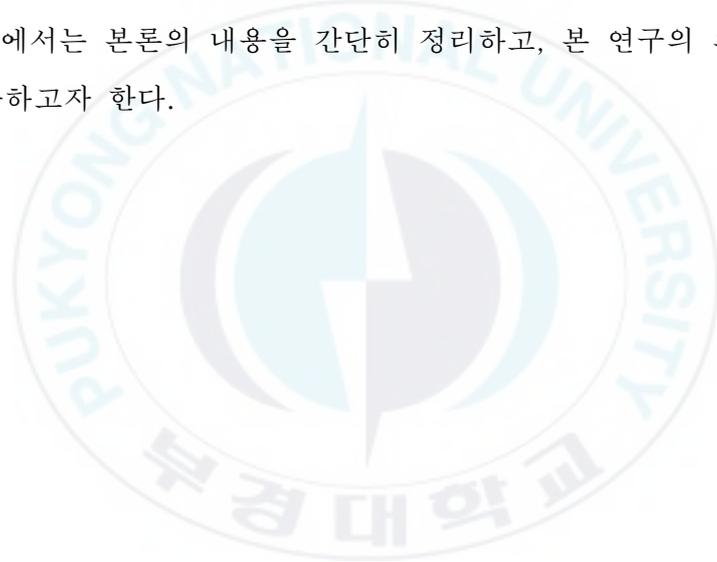
68) 운계 엮음, 『지마의 시』, 중국화교출판사, 2015.

69) 이경하, 『쉬즈모 시선』, 지식올만드는지식, 2010.

현실 비판과 인도주의적 민족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 IV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김소월과 서지마의 시의 성과와 의의를 제시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과 관점을 바탕으로 각 장에서는 구체적인 작품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한·중 대표적인 서정시 시인 김소월과 서지마의 서정시에 나타난 정서적인 의미와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검토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고 살펴볼 것이다. 이는 그 동안의 연구에서 부족했던 한·중 근대시를 문학적 측면에서 비교,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결론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1920년대 한국과 중국의 근대시와

김소월 · 서지마

1. 1920년대 한국 근대시와 김소월

한국의 근대문학은 1910년대에 이르러 개화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특징과 문학적 경향들은 일제에 의한 주권상실과 외래 사조의 유입이라는 틀 바꾸니 속에서 파행적으로 이루어진다.⁷⁰⁾

1919년 3·1운동은 식민지 처하 최대의 항일 민족 항쟁이었다. 이 운동은 당대 2천만 조선이 민중은 물론, 중국 만주 등 해외에 거주하던 교민들까지 쫓겨하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대내외에 선창한 비폭력 저항 운동의 성격을 지닌다.⁷¹⁾ 3·1운동이 일어나면서 문학 내부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항일운동과 동시에 언론을 통한 민족계몽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민간 신문과 잡지가 간행됨으로써 문학적인 면에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 국문을 위주로 하는 문학 창작이 주류를 이루었다.

1920년대 애국계몽기 이후 서구문학의 유입은 전통적 가치질서에 충격을 가세했다. 또한 3·1운동의 민족저항이 실패하자 식민지 현실은 더욱 좌절되었고 암울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얼마간의 일제의 유화정책이 문화적 여건을 호전시켰다고는 하나 문학적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20년대의 시들은 비애와 절망적 주제가 주류를 이루었다.

1920년대는 한국 문단이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70) 윤병로, 『한국 근·현대 문학사』, 명문당, 1991, 54면.

71) 노윤환, 「김소월 시의 전통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3, 16면.

시기이다. 시문학의 경우 젊은 시인들이 대거 등장하였고 이들은 동인지들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3·1운동 이후 『조선』(1920)·『동아』(1920)등의 일간지와 『창조』(1919)·『폐허』(1920) 『장미촌』(1921)·『백조』(1922)·『금성』(1923)·『영대』(1924)등의 동인지, 『개벽』(1920)·『조선문단』(1924)·『문예공론』(1927)등의 잡지가 발간되며 발표 지면이 확대된 데 힘입은 바 있다.

김소월의 시의 정서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시인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개인의 성장과정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향을 끼쳤던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김소월의 성장 배경과 시세계를 살펴보겠다.

한국을 대표하는 서정시인 김소월(1902~1934)은 본명 김정식(金廷湜), 평안북도 안북도 구성군 왕인동 외가에서 태어났고, 그해 그의 고향 정주군 광산면 남산리로 돌아와 자라게 되었다. 그의 고향인 남산리는 지형적으로 아주 특이한 마을이었다, 북쪽으로는 능한산이 우뚝 솟아 있고, 그 줄기 남쪽에 이 마을이 위치하고 있었다. 동네 남쪽으로는 서해가 보이고 바닷가 쪽에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김소월의 성격이나 정서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우리집뒷山에는 풀이푸르고
습사이의시냇물, 모래바닥은
파알한풀그림자,떠서홀너요

-풀따기⁷²⁾

이 시는 소년시절의 추억을 담은 작품의 하나다. 티 없이 맑고 고운 마

72) 김용직, 앞의 책.

음이 담겨져 있다. 이것은 어린 시절의 자연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월에게 있어 언제나 이상적인 공간, 동경의 대상이었다.

소월의 어린 시절은 비교적 행복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부는 광산업을 해서 비교적 가정이 부유한 편이었다. 큰 기와집에서 장손으로서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자랐다. 김소월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서는 그의 조부와 숙모인 계획영이 있다. 조부는 신문명에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엄격한 유교적 전통을 벗어나지 못한 채, 유교적 규범에 의해 가문을 일으키려고 노력했다. 성격이 강직하고 걱정적이어서 자신의 생각에 비추어 옳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용서치 않았다. 소월이 장성함에 친구시대의 이념적 차이, 인생관의 차이, 성격적 차이로 인해 거리가 멀어지고 불화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의 숙모는 소월이 네 살 때 시집을 와서 소월의 옆집에서 무려 19년을 같이 살았다고 한다. 숙모의 친정이 그 지방에서는 남부럽지 않은 부자여서 숙모는 아버지로부터 언문을 깨치며 신학문에도 일찍 눈을 떴다. 숙모 계획영의 『내가 기른 소월』에는 그녀가 소월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어린 소월에게 고대소월과 설화를 탐독하여 많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⁷³⁾

유년기에 들은 숙모의 이야기들은 소월의 문학적 자양이 되었다.

<생략>

옛날, 우리나라

먼뒤쪽의

73) 계획영, 『내가 기른 소월』, 장문각, 1969.

津頭江가람가에 살든누나는
이붓어미식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너보라
오오 불설워
식새음에 몸이죽은 우리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시다
<생략>

- 접동새⁷⁴⁾

평안도 박천 진두강가에 살던 오누이가 계모의 학대로 죽어 접동새가 되었다는 설화를 담은 이 작품은 바로 숙모가 들려준 이야기를 모태로 창작된 것이다.

그러나 김소월에게 있어 불행의 시작은 부친과 관련이 있다. 부친이 일본인들이 행한 폭행의 여파로 정신적 질환을 갖게 되면서 김소월은 정신이상자의 아들이라는 열등감을 갖게 되었다. 이후 김소월은 피해를 가한 일본인들에게 적대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 일제의 잔혹한 수탈과 핍박이라는 시대적 아픔과 함께 소월에게는 부친의 병이 가슴에 한을 갖게 했을 것이다. 특히 문맹인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오는 단절감은 그를 몹시 고독하게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

김소월의 오산학교 입학은 민족정신을 일깨우는 시 창작의 문이 열렸다는 점에서 그에겐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원래 오산학교는 민족의 선각자 남강 이승훈 선생이 창건한 학교로서, 소월이 민족주의 정신을 자각하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족주의 정신으로 무장된 소월은 기미독립운동 때 민중의 대열에 끼어 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었다. 이것으로

74) 김용직, 앞의 책.

불 때 소월시의 한은 단순히 개인적인 한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의 한에서 적극적인 저항을 찾을 수는 없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굳은 의지와 일제의 탄압에 대한 적대감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산학교에서 소월은 김억을 만나게 되었다. 3.1운동 이후 오산학교가 불타버린 후로 김억이 고향 남산리로 오면서 본격적인 시 지도를 받게 된다. 그 후 김소월은 다니던 오산학교를 3년여 동안 휴학을 한 끝에 배재학교 5학년에 다시 편입하여 1년을 수학한 뒤 1923년 졸업하게 된다. 그 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일본 동경 상과대학에 입학했으나, 관동대지진으로 급히 귀국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소월의 어두운 생활은 시작되었고 고향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은둔생활을 시작했다.

1924년 김소월은 가산을 정리하여 처가로 이사하고 2년 후 다시 남산으로 돌아와 동아일보 지국을 경영하나 실패하고, 다시 생존의 방편으로 삼았던 고리대금업까지 실패한다. 거기다 이 무렵 소월은 일본 관현의 중요 시찰대상으로 지목되어 괴롭힘과 모욕을 당하게 되는데, 이는 일제시대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경험했던 고통과 흡사했을 것이다. 소월의 아픔은 신지식을 익혀서 뭔가 하려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제의 탄압과 불합리한 경제제도로 인해 실패와 좌절을 겪어야만 했던 당시 지식인들의 모습인 것이다.

이상과 꿈에 대한 좌절,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허무, 적응할 수 없는 현실과 세속적 삶에 대한 절망, 인간관계의 단절, 문학의 한계성에 대한 자발, 역사의 거대한 횡포 등으로 인해 나약하고 성격적으로 불안정한 서정시인 소월은 폐인이 된다. 그 후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술로 위안을 삼다가 1934년 32세에 평안북도 구성군에서 요절한다.

소월의 생애를 통해 그의 한의 발상 요인은 아버지의 실성, 경제적 파탄, 김소월의 불안병을 꼽을 수 있다. 한의 발상 요인을 경제적 파탄으로 보는 견해는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의 전기를 중심으로 본다

면, 남산 학교 입학 무렵부터 조부가 광산업에서 큰 광맥을 발견하여, 가난하기는커녕 오히려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소월의 경제적 파탄이 한의 발상이라 함은 부적절 할 것이다. 경제적 파탄이 한이라고 보는 관점은 그의 대부분의 시들이 분가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기 때문이다.⁷⁵⁾

김소월 시인의 시적천분(天分)은 그의 학교 스승이었던 김억에 의해, 그리고 박종화에 의해 일찍이 평가되었다. 다음에 오장환의 평가를 보면, 그는 김소월의 작품을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형언할 수 없는 공허감을 깨닫는 것이요. 또 作者와 함께 이 상실한 것에 대한 애절한 원망(願望)을 돌이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혼」이 의도한 바는 어느 것이라고 좋다. 적어도 이 땅에 생을 타고난 우리가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숨길 수 없는 피압박민족(被壓迫民族)의 운명감이요 피치(避) 못할 현실에의 당면(當面)이다.⁷⁶⁾

인용된 내용과 같이, 오장환은 주권상실에 의한 ‘피압박민족의 운명감’으로 압축하여 말하면서, 상징적 기법으로 그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서 김소월 시의 내용과 그 표현기법이 시대적 특징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이해할 수 있게도 한다.⁷⁷⁾

김소월은 흔히 한국 민요시인, 전통시인, 국민시인 등으로 불린다. 소월은 반세기가 넘는 한국 현대시사상 제일 많이 읽혀진 시작품을 창작한 시인이다. 그는 그의 대표작인 「진달래꽃」을 비롯해 대다수의 작품을 1920년도에 발표했다. 시집 『진달래꽃은 소월 생전에 출간되었고 「素月詩抄」는 소월이 죽은 후 스승인 김억이 선하여 묶은 시집이다.⁷⁸⁾ 당시 발행 부

75) 김영화, 앞의 논문.

76) 오장환, 「조선시에 있어서의 象徴」, 新天地, 1947.

77) 신동욱, 「김소월의 시에 관한 연구」,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90.

78) 소월 시집 「진달래 꽃」은 시가 127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1925년에 매문사에서 간행

수는 약 10만 부 이상일 것이라는 추측들이 있다. 소월의 작품은 다른 문학 작품보다 대단히 제한된 독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짚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김소월의 시가 읽고 이해하기가 매우 쉬운 표현방식을 가졌다는 점이고, 둘째는 두 시의 소재나 내용이 매우 보편성을 띤 정서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⁷⁹⁾

김소월은 1920년 3월 『창조』(특권5호)에 「낭인(浪人)의 봄」, 「춘강(春岡)」 등을, 1920년 7월 『학생계』에 「먼 후일」, 「거튼풀 허튼어진 모래등으로」 등을 투고한다. 이후 그는 『동아일보』, 『개벽』, 『영대』 등에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특히 1922년 한 해에 발표한 작품 수는 42편에 이르는데 이때 소월의 나이 21세였다. 그의 대표적인 「진달래꽃」을 비롯한 대다수의 작품이 이 시기에 발표되었다. 시집 『진달래꽃』은 소월 생전에 출간되었고 『소월시초』는 소월이 죽은 후 스승인 김억이 선하여 묶은 시집이다.⁸⁰⁾ 1925년 발표된 「시혼」은 그의 시관을 밝히는 유일한 시론인 동시에, 그의 시작의 내밀한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다.

1932년 그가 32세를 일기로 작고하기까지 발표한 작품의 총 17편의 번역시를 포함해서 모두 270여 편이다.⁸¹⁾ 그의 작품 「山有花」를 비롯하여 「진달래꽃」, 「往十里」, 「招魂」, 「못잊어」, 「먼 後日」, 「金잔디」, 「가

素月詩抄』는 「진달래꽃」에 수록된 것을 제하면 새로운 시는 25편 수록되어 있으며 1929년에 博文文庫에서 간행되었다.

79) 박두진, 『한국현대시론』, 일조각, 1970.

80) 시집 『진달래꽃』은 1925년 12월 26일에 매문사에서 간행되었는데 이 시집에는 시가 127편이 수록되어 있다. 『소월시초』는 1929년 12월 30일에 박문문고에서 간행되었는데 『진달래꽃』에 수록된 것을 제하면 새로운 시는 25편이다. (하동호, 「소월시 작품서지」, 김열규·산동옥 편, 『김소월연구』, 새문사, 1982.)

81) 김소월 창작시 247편, 일문 혹은 영문으로 된 시 8편, 번역시 15편 등이다. (김용필 편, 『김소월 전집』, 문정사, 1981.)

는 길」, 「엄마야 누나야」 등은 널리 알려진 대표작들이다.

김소월의 시가 세상에 나타났을 무렵인 1920년 전후는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상징과 시인들의 시가 퇴폐주의와 유태주의, 상징주의의 모습을 하고 한국문학에 소개되고 있던 시기이다. 또한 이 시기는 일본 유학생이 중심이 된 『창조』, 『폐허』, 『백조』 같은 동인지를 중심으로 서구 문학이 일본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입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소월의 시적 스승인 김억은 바로 그 선두에 서 있었다. 김억이 소월의 시적 재능을 인정하고 소월의 시를 서울의 문단에 소개한 것은 그가 앞장서서 소개하고 있던 서구 문학과는 전혀 다른 시의 세계를 인정하고 소개한 셈이 된다. 소월의 시에는 서구적인 요소가 아닌 한국의 토착적인 정서가 토박이의 한국 율조인 민요의 가락에 기대어 형상화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⁸²⁾

김소월은 젊은 나이로 요절하였지만 192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그는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면서도 아름답고 값진 시를 남겨 놓았으며, 주로 10년 동안에 발표된 270여 편의 작품을 통하여 시대적 위기에 처한 민족의 비극적 체험과 미의식을 탁월하게 형상화하였다.

82) 김선학, 작가 특집- 소월 탄생 110돌에 새로 읽는 「진달래꽃」 중에서, 작가세계, 2012.

2. 1920년대 중국 근대시와 서지마

중국 역시 한국과 같이 1900년대 이후 일제와 서구열강의 압박과 위협 속에 처하게 되었지만 외세뿐만이 아니라, 내란까지 겪었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 이러한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사회 상황에서 중국의 근대 문학은 나름대로의 특징을 형성하면서 발전해 간다.⁸³⁾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세계문명사에서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기진 위대한 민족의 국가임을 자부하여 왔다. 그러나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서양의 과학 문명을 기본으로 한 군사적 경제적 발전 앞에서 더 이상 자존과 쇠국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한계를 자각하기 시작했다. 1840년의 아편전쟁 또 1856년 발생한 청불(淸佛)전쟁(제2차 아편전쟁), 1984년에 발생한 청일(淸日)전쟁 등 외국의 침략 전쟁으로 중국은 정치·사회·경제·문화에 거대한 다양한 변화를 급속히 겪고 있었다. 국가가 존망의 위기를 맞게 되자 중국의 선진적인 지식인들은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1896년 양계초(梁啓超)는 상하이에서 『시무보(時務報)』라는 잡지를 창간하여 서양의 신사상을 소개하고 구사상을 배격하며 애국주의를 고취하였다. 또 이 잡지는 ‘구문체(古文體)’가 아닌 ‘신문체(新文體)’를 사용하여 문체개혁운동에 앞장섰다. 당시 지식청년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문체개혁과 더불어 문학계에서는 이른바 ‘시계혁명(詩界革命)’이 일어났다.⁸⁴⁾

시계혁명이 비록 정치적 개혁을 목적으로 하여 발생된 운동이기는 하나 이로써 시단(詩壇)에는 새로운 기운이 충만해졌다. 많은 지식인들 특히 젊

83) 琳, 「한·중 近代詩에 나타난 老莊思想 研究」,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13.

84) 金時俊, 『中國現代文學史』, 지식산업자, 1992.

은 지식인들의 호응을 얻고 시단은 이들 개량주의 시인들에 의해 문학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문학의 틀을 바꾸고자 하는 ‘신문학운동(新文學運動)’이 일어남으로써 신문체(新文體)를 창작하자는 문체개혁운동이 진행되었으며, 중국의 전통 형식의 구속에서 벗어나 비교적 쉬운 백화문(白話文)으로 신시(新詩)를 짓기 시작하였다.

19세기 당시의 중국은 서구 문물의 대량 유입으로 정치, 경제, 문화에 걸쳐 사회 모든 방면에서 변혁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서지마를 비롯하며 일부 지식인은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중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자극 주는 지식인들은 서지마(徐志摩), 노신(魯迅)⁸⁵, 주자청(朱自淸)⁸⁶, 곽말약(郭沫若)⁸⁷, 문일다(聞一多)⁸⁸ 등이 있다. 노신(魯迅)의 작품 속에서 사회악을 고발하였고, 한편으로는 사회에 대한 개혁의 의지와 전투적 정열을 표출하기에 노력했다.

주자청(朱自淸)의 시는 언어가 박실(樸實)하고 현대 구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여 당대시인 가운데서 뛰어난 시인으로 꼽히고 있다. 곽말약(郭沫若)의 시는 낭만주의파의 대표 작가답게 개성의 해방과 애국주의적 열정이 담겨 있으며 웅혼하고 호방한 풍격으로 청년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920년대 ‘신월파(新月派)’를 중심으로 하는 격율시(格律詩) 운동은 주로

85) 迅(1881-1936), 본명은 周樹人이고, 字는 豫才. 1902년 일본의 仙台醫學專門學校에서 醫學을 공부했다. 1906년 문학으로 전향했다. 그는 일생 동안 3권의 소설집을 남겼는데 『吶喊(외침)』, 『彷徨(彷徨)』, 『故事新編(고사신편)』이다. 그의 작품 24편 가운데 1921년에 쓴 『阿Q正傳(아Q정전)』은 그의 대표작이다. 이 작품 속의 주인공 ‘阿Q’는 바로 중국을 상징한 다고 할 수 있다.

86) 朱自淸(1898-1948), 본명은 自華, 字는 佩弦. 1916년에 北京大學 철학과에 입학하여 1922년 문학연구회에서 발간한 중국 최초의 시 전문지인 『시』 월간의 편집인 되었다.

87) 郭沫若(1892-1978), 본명은 郭開眞. 일본 九州帝國大學 의학부에서 수학했다. 1920년에 시집 『女神』을 창작하여 1921년에 『창조총서』의 하나로 출판하였다.

88) 聞一多(1899-1946), 본명은 亦多. 1914년 淸華대학교 입학하여 1922년 미국에 유학하여 시카고미술대학교 콜로라도대학에서 미술과 희곡을 공부하였다.

시의 격률 면에서 시적인 미감을 추구하였다. 1926년 4월 북경의 『신보(晨報)』 부간인 『시전(詩鐫)』에 모였던 시인들은 1926년 6월에 『시전』을 정간하고는 북경을 떠나 남하하게 된다. 이 시전파(詩鐫派)는 상해에서 창간된 『신월』 잡지에 모여 다하지 못한 격율시 운동(格律詩運動)을 재개하였다.

『시전』이 창간됨으로써 시단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났다. 참가한 시인들은 대체로 1923년에 결성된 문학 단체 신월사의 성원들로는 문일다(聞一多)·서지마(徐志摩) 등이 있다. 이들은 중국 신시가 한계에 이른 것은 ‘시형식의 해방’만을 추구하고 ‘음률’을 무시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서지마는 「시전변언(詩鐫弁言)」에서 신시의 새로운 창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우리의 책임은 사상과 영혼을 위해 적당한 형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시문과 각종 미술의 새로운 격식과 새로운 음절의 발견이다. 우리는 완미한 형체는 완미한 정시의 유일한 표현임을 믿는다.⁸⁹⁾

이 글은 신월사 시인들이 제창한 격률시의 선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신월사 시인들은 신기의 격률을 만들어 내고자 했는데, 그 대부분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 서양 시의 격률을 중국 신시에 도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시의 형식미를 중시하여 그것을 ‘화해(和諧)’와 ‘균제(均齊)’로 정의하고, 고전시의 엄격하고 고정된 격률은 배제하되 좀 더 자유롭고 다양한 격률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이때부터 중국 신시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⁹⁰⁾

89) 志摩, 「詩鐫弁言」, 『晨報副刊·詩鐫』一號, (陽匡漢, 劉福春編, 『中國現代詩論』, 花城出版社, 1985.)

90) 홍석표, 『중국현대문학사』, 이화여자대출판부, 2009, 174~182면 참조.

그 다음으로 중국 서정시인 서지마의 성장 배경과 시세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서지마(1897~1931)는 본명 서장서(徐章瑒), 자는(字) 유삼(撫森), 우신(又申). 중국 신월파(新月派)⁹¹⁾의 대표 시인이며 흔히 낭만시인이라 불렸다. 1896년 1월에 절강성 해녕시(浙江省海寧市)에서 당시 갑부였던 아버지 서신여(徐申如)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부유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상해와 항주 사이에 위치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자랐다. 서지마는 영국 유학시기에 서지마로 이름을 바꾸었다. 서지마는 ‘중국의 해밀턴’과 같은 유명한 경제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했는데, 뜻밖에도 그는 문학으로 방향을 바꾸어 돌아왔다.

내가 시를 쓰게 된 이유를 말하자면 그것은 전혀 의외의 일이었다.....24세 이전에 시에 대한 나의 흥미는 상대론(相對論)이나 민약론(民約論)에 대한 흥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 부친이 나를 유학시킨 것은 장차 금융계(金融界)에 진출시키고자 할이었다. 난 중국의 해밀턴(Hamilton)이 되고자 하는 야심도 있었다.⁹²⁾

1908년 협석개지학당(硤石開智學堂)에서 공부하고 고어(古語)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1910년 서지마 만 14살에 고향을 떠나 항주(杭州)에 가서 항주부중(杭州府中)에서 중학교 생활을 하며 신식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고전문학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도 하였다. 항주 부중에 다녔을 때는 서지마는 『우성(友聲)』에 논문 「논소설여사회지관계

91) 신월파(新月派)는 1928년 3월에 신월서정에서 문예종합지인 『신월』을 창간하여 최초 ‘신월’이라는 명칭이 문단에 등장했다.

92) 说到我自己的写诗, 那是再没有更意外的事了,....在24岁以前我对诗的兴味远不如我对于相对论或民约论的兴味, 我父亲送我出洋留学是要我将来进金融界的, 我自己最高的野心是想做一个中国的amilton.(梁秋实, 『徐志摩全集』第二辑, 『猛虎集(序文)』, 传奇文学出版社, 1980, 340면.)

(論小說與社會之關係)」를 발표하였다. 이 문장은 서지마가 사회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었음을 증명한다. 이때 옥달부(郁达夫)⁹³⁾가 다니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동창이었고 계속 좋은 친구가 되었다. 옥달부는 서지마가 비행기 사고 당한 후, 「내 기억 속의 서지마(志摩在回憶里)」에서 당시의 서지마를 이렇게 기억하였다.

몸이 작고 얼굴이 길며 머리도 유난히 큰 아이.....이것 저것과 소란을 피우다 결과적으로는 끝내 자기도 모르게 경쾌하고 우스우며 기묘한 일을 저질러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다.....더욱이 나로 하여금 놀라게 한 것은.....평소에는 그리도 공부하지 않고 그리고 소설 보기를 좋아하는데도-시험을 보거나 글을 지으면 늘 점수를 제일 많이 받은 아이였다.⁹⁴⁾

1915년 항주부중(杭州府中)에서 졸업하고 상하이공대학(上海理工大學)에 입학하여 같은 해 서지마가 20살에 父母之命,媒妁之言⁹⁵⁾에 따라 장유의(張幼儀, 1900~1988)와 결혼하였다. 결혼하고 나서 바로 천진(天津)에 올라가서 북양대학(北洋大學) 법학예과로 진학을 했다. 북양대학(北洋大學)에 공부하는 2년 동안 새로운 사상을 배우게 될 뿐더러 법학뿐만 아니라 일본어, 불어, 정치학 그리고 중외 문화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이때는 중국 근대 사상 중국을 주름잡은 유명한 인물인 량계초(梁啟超)⁹⁶⁾

93) 达夫(위다푸, 1896~1945)는 중국 현재소설가, 산문가, 시인. 1922년 일본유학, 귀국하여 상하이에서 『創造季刊』을 편집하였다.

94) 一個身體生得很小, 而臉面却是很長, 頭也生得特別大的小孩子.....和這個那個鬧鬧, 結果却最終會出其不意的做出一件很輕快很可笑很奇特的事情, 來吸引大家的注意的.....而尤其使我驚奇的.....是平時那樣的不用功, 那樣的看愛小說-而考起來或作起文來, 却總是分數得到最多的一個.(陳敬之, 『新月及其重要作家』, 成文出版社, 1980, 30~31면.)

95) 父母之命,媒妁之言. 부모의 命과 중매인의 말. 옛날 혼인은 부모의 명과 중매인의에 의해 결정된 뜻함.(『孟子·滕文公下』)

96) 梁啟超, (양계초, 1873년 ~ 1929년)는 중국의 근대 사상가이자, 개혁가, 문학가, 사학자, 언론인, 교육가이다. 당시 뛰어난 대학자였던 康有為의 제자로, 그를 통해 개혁 사상과 서양의 근대 지식을 배웠다. 康有為와 함께 광서제에게 보내는 상서를 함께 작

선생의 제자이기도 하다, 량계초(梁启超)은 서지마의 인생 중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미 자본주의의 자유, 민주사상을 받아들인 서지마가 자유연애를 추구하려고 한다.

북양대학(北洋大學)에 다녔을 때, 그 당시는 중국 내 군벌들의 혼전으로 국민들이 도탄에 빠지게 된 모습을 보고 자국의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모색하려 미국 클라크대학(Clark University)과 콜롬비아 제국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지마는 수업을 이수하며 자신의 관심 분야를 확장하였다. 미국에 있는 당시 1919년도에 있었던 중국 5·4혁명은 동으로 인하여 애국심을 느끼고 중국인들을 모아 함께 자국에 대한 애국활동을 하였다. 당시 『신청년(新青年)』, 『신조(新潮)』 등 애국에 관한 책을 보고 점차 정치에서 문학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서지마가 미국에 있는 동안 수많은 책을 통해 프리드리히 니체⁹⁷⁾와 버트런드 러셀⁹⁸⁾ 등 여러 사상서를 접하였다. 러셀은 서지마의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러셀의 정치, 사회에 관한 언론은 서지마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1920년 9월 24일, 결국 러셀을 만나러 大西洋을 건너 영국으로 떠났다. 그는 「내가 알고 있는 케임브리지(我所知道的康橋)」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2년간의 미국생활 동안 살면서 물질을 중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에 대한 실망을 느끼고 영국으로 건너가게 된다.

, 이것이 광서제의 눈에 들어 결국 戊变法(무술변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서태후 등 반개혁 세력의 반동으로 이 혁명은 100일 만에 실패로 돌아간다.

97) 프리드리히 니체 (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는 독일의 철학자, 시인. 주저는 『반시대적 고찰』 (1873~1876),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1883~1885) 등이 있다.

98) 버트런드 러셀 (Bertrand Arthur William Russell 1872~1970)는 영국의 수학자, 철학자, 역사가, 사회 비평가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이자 지성인으로 여겨진다. 195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내가 영국에 간 것은 러셀을 따르고자 한 것이었다. 러셀이 중국에 왔을 때 나는 이미 미국에 있었다. 그에 관한 불확실한, 죽었다는 소문이 전해졌을 때 나는 정말 눈물을 흘려 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또 애도시를 썼다.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당연히 기뻐다. 나는 콜롬비아대학 박사학위의 유혹을 뿌리치고 배표를 사서 대서양을 건너갔다.⁹⁹⁾

1918년 미국에 유학했을 때 러셀에 심취하였던 서지마는 1920년 영국에서 케임브리지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영국 낭만주의는 서지마의 시 창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케임브리지 생활과 학풍에 압도된 서지마는 원래의 포부와는 전혀 다른 시인으로 변모해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아름다운 자연은 그에게 ‘중국의 셸리’라는 칭호를 얻게 해주었다. 영구에서 서지마는 새로운 가치관과 인생관을 만들게 되었고 문학에 흥미를 느끼고 문학 작품 번역에 힘썼다. 이후 중국으로 돌아와서 시인으로서의 문학 활동을 펼쳐 나갔다. 1921년 최초로 ‘신월파(新月派)’란 이름으로 중국문단에 등장하였다. 그의 「안녕, 케임브리지(再会康桥)」를 비롯하여 「피렌체의 하룻밤(翡冷翠的一夜)」, 「눈꽃의 즐거움(雪花的快乐)」 등은 널리 알려진 대표작들이다.

그는 「흡연과 문화(吸煙與文化)」라는 글에서

나의 눈은 케임브리지가 뜨게 하였고 나의 지식욕은 케임브리지가 발동하게 하였으며 나의 자아의식은 케임브리지가 배태하게 하였다.¹⁰⁰⁾

99) 到英國時為要從羅素, 羅素來中國時, 我已經在美國. 他那不確定的死耗傳到的時候, 我真的哭出眼淚不夠, 還做悼詩來了, 沒有死, 我自然高興. 我擺脫了哥倫比亞博士的引誘, 買船票過大西洋. 宋益喬. 『徐志摩傳』, 北岳文藝出版社, 1990.

100) 我的眼是康橋教我睜的, 我的求知慾是康橋給我撥動的, 我的自我意識是康橋給我胚胎的. 「吸煙與文化」. 서지마 『徐志摩全集』 제3卷, 中央翻譯出版社, 2013,

라고 말해 케임브리지 시절이 그의 삶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케임브리지 유학 시절 만나게 된 임휘음¹⁰¹⁾은 그가 내내 꿈꿔온 이상적인 여자였다. 당시 그녀 나이 16살이었다. 임휘음은 정계의 유명인사인 임장민(林長民)의 딸이다. 서지마가 임휘음을 만나게 된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또 하나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그가 시인으로 굳건히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임휘음은 미국 예일대학 연극과를 졸업했으며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 건축학 학사이기도 하다. 또한 그녀는 중국이나 서양의 문학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임휘음을 만나서 사랑하게 된 서지마는 본처인 장유의와 이혼하면서 중국 근대사에 첫 번째 자유 이혼을 한 인물이 되었다. 량계초(梁启超)는 서지마 이혼 소식을 듣고 바로 서지마에게 편지를 쓰고 경고했다. 그러나 서지마의 생각을 돌릴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지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망망한 인해 중에 자한테 유일한 영혼의 배우자를 찾을 것이다; 만나게 되면, 나의 운이고; 못 만나게 되면, 나의 명이다, 그게 다야.¹⁰²⁾

101) 徽因, 원명은 林徽音, 1904~1955. 1904년에 항주에서 출신. 중국 현대 시인, 산문가, 건축가. 임휘음이 梁启超(1873~1929)의 장남 梁思成(1901~1972)과 결혼하고 약속하고 함께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으로 유학 간다. 훗날 그녀는 문인이로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현대 건축 역사상 최초의 여성 건축가로 활동하며 국가회장과 인민영웅기념비를 주관 설계하는 등 큰 활약을 펼쳤다.

1931년에 陈梦家(1911~1966)는 「시월과시집」의 서언에서 "우리는 보다 더 신기하고 아름다운 시 작품을 갈망하고 있다. 임휘인이 처음으로 지은 몇 수의 시를 우리는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평가하였다.

102) 徐志摩, 「徐志摩致梁启超书」, 吾会寻觅吾生命灵魂唯一之所系, 得之, 我之幸也; 不得我之命也.

위에 글을 살펴보면 서지마가 추구하는 사랑이란 단순한 신앙(信仰)을 넘어 평생 동안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겠다는 결심이 보인다.

1922년 8월 그는 2년 동안의 영국 생활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임회음은 아버지인 임장민(林長民)이 소개한 친구의 아들과 결혼을 하고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이후 임회음은 귀국하여 「신월사(新月社)」에 참가하여 활동한다¹⁰³⁾.

임회음이 떠난 후에 서지마에게 남은 것은 냉혹한 현실뿐이었다. 우울감에 빠져 지내다 친구 왕경(王賡, 1895~1942)의 부인이었던 육소만¹⁰⁴⁾을 만나 결혼하게 된다. 육소만은 15살 때 이미 영어, 프랑스어의 두 언어에 능통했고, 악기에 대한 재능을 보였다. 서지마는 육소만과 사랑에 빠져 부모의 강렬한 반대에 부닥친다. 그의 집안의 반대는 물론 사회적인 여론의 압박도 극심했다.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다” 압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항은 더욱 철저하다. 육소만은 남편과 이혼하고 서지마와 재혼 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이 끊김으로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육소만은 사치한 생활을 누렸으며 아편까지 중독하게 되었다. 어느 날 서지마는 육소만과 격렬한 충돌이 발생한 후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리고 임회음의 연설을 들으러가기 위해 북경으로 올라간다. 1931년 남경에서 북경으로 가는 우편물 수송 비행기(중국민항제남호-中國民航濟南號)에 탑승했다가 도중 안개 때문에 제남(濟南) 부근에서 산에 부딪쳐서 추락하여 서지마를 포함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 ‘살며시

103) 지금까지 가장 보편화되 견해에 따르면, 임회음이 자신과 사귀려면 먼저 장유와의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지마가 이혼한 뒤. 당시 16세였던 임회인은 서지마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임회인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설과 임회인의 아버지이자 서지마와 절친한 사이였던 임장민이 반대를 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어쨌든 결국 둘 사이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회인은 귀국한 뒤 서지마의 스승 扈超의 아들인 梁思成과 약혼을 하고 뒤에 결혼을 한다. (이육연, 앞의 논문, 122면.)

104) 陸小曼(육소만, 1903~1965)은 중국 근대화가, 작가.

내가 왔듯이, 살며시 나는 떠나간다. ; 나는 소맷자락을 털어내며, 한조각의 구름마저 가져가지 않는다.’¹⁰⁵⁾는 듯 서지마는 36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호적(胡適)¹⁰⁶⁾은 「추도지마(追悼志摩)」이라는 글에서, “그의 인생관은 정말 일종의 단순한 신앙이며 이한에는 오직 세 개의 큰 글자가 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자유이며 또 다른 하나는 아름다움이다. 그는 이 세 개의 이상적 조건이 하나의 인생 속에서 합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꿈꾸었지만 그것은 그의 단순 신앙이었다. 그의 일생의 역사는 오로지 이 단순 신앙의 실현을 추구한 역사이다.¹⁰⁷⁾ 모순(茅盾)은 서지마에 대한 “그는 중문 문단에서 걸출한 대표적인 인물로, 서지마 이후 후계자 중에서 버금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서지마는 20세기 초 중국 신시 창작에 중요한 낭만주의 시인이다. 신월파의 주도 인물로 1926년에는 『신보부간』에 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전』을 만들고 편집과 관리를 담당했다. 서지마를 중심으로 한 신월파는 신격률시의 창작과 이오 관련된 연구와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면서 순수시 운동을 전개하였다. 신월시파는 고전시와 구별되는 현대적 의미의 격률을 추구하며, 질서와 균형을 내포하는 형식이 시적 표현에 있어 장애가 되어

105) 悄悄的我走了，正如我悄悄的来；我挥一挥衣袖，不带走一片云彩는 「안녕! 케임브리지(再別康橋)」는 1928년에 서지마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시는 『맹호집(猛虎集)』에 수록되어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에서의 지난 추억을 떠올리며 임휘음과의 사랑을 회상하는 시이다.

106) 胡適(1891~1962), 본명은 胡洪驊이고, 字는 適之. 1911년에 미국에 유학, 콜롬비아대학 대학원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17년 귀국하여 북경대학 교수가 되었다. 1917년 미국에 있으면서 『신청년』에 「문학개량에 대한 보잘것없는 의견」이라는 중국 최초의 문학개혁론을 발표하여 '문학혁명'의 선창자가 되었다. 그는 이어 「역사적 문학관념론」, 「건설적 문학혁명론」 등을 발표하여 문학혁명을 주도했다.

107) 他的人生觀真是一種單純的信仰，這裡面只有三個大字：一個是愛，一個是自由，一個是美。他夢想這三個理想的條件能夠會和在一個人生里，這是他單純的信仰，他的一生的歷史，只是他追求這個單純信仰的實現的歷史。(胡適「追悼志摩」，1932年。邵華強編『徐志摩研究資料』，陝西人民出版社1988，298면)

서는 안 되며, 반대로 형식이 내용을 지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⁰⁸⁾

서지마의 전체적인 창작활동은 일반적으로 크게 초기와 후기 두 가지로 구분되고 설명할 수 있다. 초기 작품에서 서지마는 사랑을 그리면서 세상을 바꿀 의욕에 차 있다가 점점 당시 중국 상황과 현실에 관심을 갖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훗날에는 자신의 이상이 실현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자연으로 돌아가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사회적 배경으로 인한 것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혼생활로 인한 감정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¹⁰⁹⁾

서지마의 삶이 불의의 사고로 짧게 마감된 것처럼 그의 작품 역시 한창 수확을 거둬야 할 시기에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다. 20대 중반, 서지마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머물며 기이한 바람에 홀린 듯 시를 쓰게 된 이후 10년간 치열하게 자신의 속내와 고민을 시로 표현하였다. 그는 자신의 사랑만을 시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중국 사회의 병폐와 봉건 예고의 속박에 대해서도 비판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중국 신시의 발전을 위해 지진하게 고민하고 해결의 길을 모색한 시인이었다.

그러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그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에 반대한 ‘부르주아 시인’으로 낙인찍혀 그의 작품은 형편없는 것으로 취급되었고 이러한 그의 작품에 대한 족쇄는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야 풀리게 되었다.¹¹⁰⁾

중국 문단에서 서지마가 활동한 시기는 1922년 영국에서 귀국한 이후

108) 이경하, 앞의 책, 23면.

109) ‘有一个时期我的诗情真有些像是山洪暴发, 不分方向的乱冲, 那就是我最早写诗的那半年, 生命受了一种伟大力量的震撼, 什么未成熟的意念都在指间散作缤纷的花雨.....我在短期内写了很多’(徐志摩, 『猛虎集·序』, 『我所知道的康桥』, 中国画报出版社, 2015, 226면).

110) 이경하, 앞의 책, 26~27면.

활동을 시작하여 1931년 불의의 사고로 떠날 때까지 대략 10년간이다. 서지마는 생전에 세 권의 시집을 출간했고, 그가 죽은 이듬해에 그의 지인들이 그가 남긴 창작시와 번역시를 모아 유고 시집을 발표했다. 서지마가 최초로 발표한 시는 1922년 『노력주보(努力週報)』에 발표된 「마르세유」와 「지중해」 두 편이며, 시인이 생전에 스스로 엮은 시집으로 첫 번째 시집인 『지마의 시(志摩的詩)』는 1925년 8월 중화서국에서 출판되었다. 이 시집은 대부분 1922년 영국에서 귀국 후 1924년 사이에 창작된 작품들은 55편을 수록되었으며, 그에게 시인으로서의 명성을 얻게 해 주었다. 이 시집은 비교적 함축적인 사랑의 추구하고 자유와 개성해방에 대한 추구가 융합되어 있다.

두 번째 시집 『피렌체의 하룻밤(翡冷翠的一夜)』는 1927년 상해서점에서 출판되었다. 이 시집은 서지마가 1925년에서 1927년 사이에 창작된 시 36편과 역시(譯詩) 7편을 합해 총 42편이 모은 것으로, 육소만의 결혼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27년 9월 상해서점에서 출판되었다¹¹¹⁾. 서지마에게서 이 시집은 그 동안의 거둬들인 사랑의 실패에서 벗어나 마침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시집은 대부분 둘째 부인 륜소만(陸小曼)과의 애정생활을 표현한 것으로 절대적인 애정추구와 추구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주 내용이다.

세 번째 시집은 『맹호집(猛虎集)』은 1931년 8월 신월서점에서 출판되었으며, 번역시 6편을 포함하여 모두 39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은 1927년부터 1931년 11월 19일 불의의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작품을 실은 그의 시작(詩作)이다. 이 시집은 이상과 희망이 좌절되어 버린 시인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11) “소만, 당신이 이 시집을 받아 주시오, 이것은 우리 사람의 결혼을 기념하는 작은 선물이오.”(曼, 請你收受這一集詩, 算是紀念我倆結婚的一份小禮). (『徐志摩, 『翡冷翠的一夜·序』, 『徐志摩全集』 4冊, 上海書店, 2000, 136면.)

마지막 시집인 「운유(雲遊)」는 서지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듬해 소순미(邵洵美, 1906~1968)와 진몽가(陳夢家, 1911~1966)는 그를 추모하기 위해 『맹호집』 이후 창작된 시편들과 번역 작품을 모아 출간한 유고 시집이다. 이 시집은 미발표시 11편과 번역시 2편을 모아 1932년에 출판하였다. 이 시기 서지마는 더 이상 이상이나 자유의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현실에 묻혀 경제적인 궁색과 정신적인 운동, 학문적인 담보상태에 빠져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한시, 번역시와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까지 포함하여 대략 총 229편 중 창작시가 189편 또는 190편이 전해지고 있다. 서지마는 중국 현대시가사에서 1920년대 중국 현대 자유시를 완성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35세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이상적인 사랑을 추구하면서 중국 현대 시인, 산문가, 신월파 대표 시인으로 중국 문단에서 중요한 자리를 잡았다.

Ⅲ. 김소월과 서지마의 시 비교

1. ‘님’과 사랑에 나타난 정서

김소월은 서구 시의 형식에 전통적인 민요 율조와 토속적인 언어를 가미함으로써 한국인의 정서적 특질을 표현해냈다. 그는 조국의 비극적인 현실보다 한 민족의 정한(情恨)을 시로 형상화함으로써 현대시사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였다.

김소월 시의 핵심 주어는 ‘님’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작품 속에서 ‘님’은 ‘당신그대, 애인, 그 사람, 내 사랑, 그 여자’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계열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는 많은 작품 속에서 ‘님’을 잃은 상실감과 그로 인한 간절한 그리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님’이 구체적으로 표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의미상으로는 동일한 관계망 속에 존재한다. 그런데 ‘님’을 노래하는 이러한 정서는 비단 소월뿐 아니라 1920년대 한국 시단의 공통된 주제 중 하나였다. 동시대의 시인인 한용운을 비롯한 주요한, 이상화, 김동환, 박종화 등도 필연적으로 ‘님’의 의미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이는 당시의 시대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민족수난기인 이 시기에 상징적 존재로서의 ‘님’을 상징해놓고 그에 대한 각별한 애착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즉, 일제의 강점과 수탈로 인한 궁핍과 훼손된 민족의 정기를 되찾아는 의미에서 시적 대상으로 상징된 것이 님이었다. 이들은 조국의 상실을 ‘님’의 상실이라는 비유적 틀 속에서 표출하며 시대적 아픔과 절망감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표현된 모든 ‘님’을 시대적 상황과 관련시켜 이해하는 것은 ‘님’의 의미를 지나치게 일반화시켜 해석하는 오류를 저지르는 일이 될 것이다. 그 동안 김소월 시의 중심 주어인 ‘님’의 실체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 낸 허구의 대상이거나 민족적 의미를 가진 상징으로 막연히 생각하여 단어의 의미를 밝혀내는데 적잖은 혼란이 있었다. 따라서 소월시의 ‘님’을 시대적 상황과 관련시켜 무턱대고 고향이나 국권을 상징하는 관념적인 ‘님’으로 보는 것은 소월시의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라 할지라도 모든 작품에서 현실인식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님’을 주어로 한 소월의 많은 시들이 사랑하는 ‘님’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소월은 『시혼(詩魂)』에서도 현실인식을 드러내는 작품뿐 아니라 ‘님’과의 개인적 정한(情恨)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에도 시인의 시혼은 빛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님’의 의미와 이별의 정한, 그리움과 합일 지향, 국권 상실과 민족의식, 돌아갈 수 없는 고향과 나그네 의식, 저항의지와 공동체의식 등이 모든 것이 김소월의 유일한 시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혼』을 통해 그의 시의식과 창작 태도를 알 수 있었다. 그가 꿈꾸는 자연적 삶은 곧 과거의 전통적인 삶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진실된 삶의 본질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조국의 상실과 사랑하는 ‘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동시에 극복 하고자함의 표현이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김소월 시의 시혼과 그 시의 족적으로 인해 과거의 유교적 가치와 새로이 유입된 서구적인 가치가 혼동을 일으키고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하여 개인의 정체성은 물론 사회 전체의 정체성이 혼란을 일으키던 격동의 시대에 김소월은 일관된 시의식과 태도를 보이며 나름의 방법으로 자신의 세계

를 펼쳐 나갔다. 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현실에 맞서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뚜렷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았고, 한국 민족의 보편적 정서를 자극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했으며, 식민지 시대에 대한 저항의지를 표출하였다. 또한, 통시적 안목으로 전통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켜 탁월한 감각으로 현대시화 하였으며, 서구의 자유시가 문단을 휩쓸던 시대에 다양한 외래 문학체험을 자신의 고유한 언어로 발전시켜 나갔다. 근대 문학의 태동기에 김소월이 보여준 이러한 시의식과 창작에의 태도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대 다른 시인들과의 세심한 비교를 통해서도 그 의의는 크게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그가 남긴 수많은 시들과 시혼들은 아직까지도 연구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며, 정서와 민족의식 고취에 큰 역할을 이어 나갈 것이다.

1) 이별과 한의 정서

김소월 시의 가장 대표적인 정서는 ‘한’이다. 흔히 한이 한국의 민족 정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의 정서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오세영이 깊이 살핀 바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것은 제일차적 갈등으로서 좌절과 미련의 서로 모순되는 감정의 충돌이며, 제이차적인 갈등으로서 원망과 자책의 상반하는 감정의 충돌이다. 한은 결코 통일된 혹은 해결된 감정일 수 없다. 그것은 복합된 갈등의 감정이며 동시에 미해결의 감정인 것이다.¹¹²⁾

112) 오세영, 앞의 책.

한마디로 말해서 한은 ‘갈등의 감정’ 이라는 것이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의 연인과의 이별, 현실에서의 조국의 상실, 존재론적으로는 생의 유한성
으로 표현하고 있다. 「진달래꽃」은 소월 시에 한의 정서를 잘 표출이 되
었다고 본다. 지금부터 그의 「진달래꽃」부터 분석해보기로 한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말엄시 고히 보내드리우리다

寧邊에 藥山
진달래꽃
아름따라 가실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거름겨름
노힌그끗출
삼분히즈러밧고 가시웁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죽어도아니 눈물흘니우리다

- 「진달래꽃」 113)

「진달래꽃」에서 김소월은 사랑하는 님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데서 겪은
슬픔과, 하지만 울고불고 하지 않고 고이 보내드리겠다는 자기희생적인 순
수한 사랑을 바치는, 다시 말해서 이 작품은 인고의 미득을 베푸는 데서

113) 김용직, 앞의 책, 165면.

맛볼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행복감과 기쁨이 복합된 한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¹¹⁴⁾ 즉 님에 대한 절절한 슬픔과 눈물마저도 참아내는 전통적 여인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또한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과 같은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여 공통적 정서를 자극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 하였다.

이 시의 주제는 이별의 정한이다. 떠나가는 님을 말없이 보내면서, 진달래꽃까지 따다가 길에 깔아주며 마지막 예의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는 이별의 현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하고 미래의 어느 이별을 가상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곧, 화자는 아직 떠나지도 않고 있는 님에게 이별시에 화자가 취할 태도를 미리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별의 가상적 설정은 그의 시에서의 ‘님’의 가상적인 설정과 함께 소월시의 가장 중요한 시적 발상의 근원이다.

그러면 왜 떠나지도 않고 있는 님에게 소월은 미리부터 서둘러서 이별의 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그의 소극적 성격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님과 헤어져야 할 입장이라면 이별하는 경우에라도 마지막으로 님의 마음을 되돌려 보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보내고 싶지 않은 감정을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라고 역설적으로 강하게 나타내면서도, 어떤 화해나 새로운 관계의 모색을 위한 노력을 나타내면서도, 어떤 화해나 새로운 관계의 모색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님에 대한 원망과 미련의 감정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뒤돌아선 님에게 한 번 더 애절한 바람으로서 비록 님은 떠나가지만 나는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을 텐데, 그래도 ‘님은 떠날건가’ 하는 마지막 몸부림의 굴절된 표현일 뿐이다.¹¹⁵⁾

114) 임영환, 김소월 시 연구, 『한국군사학논집』, 육사사관대, 1986.

접동

접동

아우래비접동

津頭江가람까에 살든누나는

津頭江압마을에

와서웁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뒤쪽의

津頭江가람까에 살든누나는

이붓어미식쌌에 죽엇습니다

누나라고 불너보랴

오오 불설워

식새음에 몸이죽은 우리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엇습니다

아웁이나 남아되든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니저 참아못니저

夜三更 남다자는 밤이깁프면

이산 저산 올마가며 슬피웁니다

- 「접동새」 116)

115) 조동구, 앞의 논문.

116) 김용직, 앞의 책, 175면.

이 시는 1923년 『배제』에 발표되었다가 1925년 『진달래꽃』에 개작, 수록되었다. 서북지방에 유포되어 전해지던 「접동새 설화」를 차용하여 시 텍스트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이야기는 김소월이 아홉 살 때 숙모인 계획영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후에 시화되었는데, 「접동새」설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옛날 박천 진두강이 흐르는 산골에 한 선비가 살았다. 그에게는 맏이인 딸 하나와 밑으로 아홉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었다. 그런데 어린 것들을 두고 어머니가 그만 세상을 먼저 떠나버렸다. 누나는 집안 살림에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느라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아버지는 곧 새 어머니를 들이게 되었는데 후모는 누나와 동생들을 괴롭히고 구박했다. 그러던 중 누나는 박천골 어느 부잣집 양반 아들과 약혼하게 되어 쉼 수도 없이 많은 예물을 받았다. 이를 시기한 후모는 예물이 들어있는 장롱 속에 누나를 가두고 불을 질러서 태워 죽였다. 아홉 동생들이 불에 탄 잿더미를 헤치고 누나를 부르며 우니 접동새 한 마리가 슬피 울며 날아갔다. 뒤에 이를 안 관가에서 후모도 똑같은 방법으로 태워 죽이니 그 속에서는 욕심쟁이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누나는 접동새가 되어서도 후모가 무서워서 야삼경 남들이 다 자는 밤에나 오랩동생 생각에 창가로 날아와서 슬피 울었다.¹¹⁷⁾

비록 전설에서 취재하여 이루어진 작품이지만, 이승을 건너 저승에까지 미치는 듯한 소월의 가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족에 대한 사랑은 그의 아버지가 실성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집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대신해야 했던 사실에서도 기인하는 것이다.

김소월의 전기적 기록에서는 소월의 아버지의 실성이 소월에게 미쳤던 영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자라나는 동안 소월이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던 실성한 아버지의 불행한 모습을 소월의 감정을 숙명

117) 계획영, 『약산 진달래는 우련 붉어라』, 문학세계사, 1982, 73~78면 요약.

적인 비애와 한으로 몰고 갔다. 결국 소월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죽음의 실체와도 같은 존재이었다. 소월의 시에 나타나는 한과 죽음의 이미지들은 평생을 페인으로 생존해야 했던 아버지의 생애와 깊이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118)

곧, 김소월은 아버지의 불행한 모습에서 실추된 가정의 역할과 가족들에게 미치는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성장하면서 그러한 아버지에 대한 애처로움과 원망의 감정과, 그의 할아버지의 사업의 실패로 인한 경제적 파탄을 딛고 일어서서 가정을 재건해야 할 사명감을 느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19)

먼훗날 당신이 차즈시면
그때에 내말이 「니젓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리면
「목척그리다가 니젓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리면
「밧기지안아서 니젓노라」

오늘도어제도 아니닛고
먼훗날 그때에 「니젓노라」

- 「먼 後日」 120)

118) 김영삼, 『한국현대시독자론』, 아카데미논총, 1973.

119) 조동구, 앞의 논문.

120) 김용직, 앞의 책, 3면.

위의 시 「면後日」은 떠나버린 님이 다시 찾게 되는 날을 가상하고 미리 변명쯤으로 자신이 님을 “무척 그리다가”, 그리고 “밋기지안아서” 잊었으며, 그것은 당장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의 할 수 없는 잊음이라는 시간을 전도시킨 표현을 준비하고 있다.

떠나가지도 않은 님에게 미리 이별의 노래를 준비하고, 떠나가는 님에게 진달래꽃을 깔아주면서 그러한 정성이 님을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릴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며, 그러다가 떠나간 님이 혹시 다시 찾아줄 지도 모를 날을 가상하고, 그때는 거꾸로 님을 잊었음은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말로서 다시 님에게 자신을 인식시키려고 하는 일면의 양면적인 행동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현실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능동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나가는 모습으로 보기 힘들 것이다.¹²¹⁾

“당신”이 부재한 어제와 오늘은 잊지 않고 있다가 막상 당신이 찾아올지도 모르는 “면 후일”에는 이미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진술함으로써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2) 그리움과 애원의 정서

서지마의 비교적 전기 시집이라고 할 수 있는 『지마의시(志摩的诗)』 『피렌체의 하룻밤(翡冷翠的一夜)』에서는 애정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계기는 바로 임희음과 육소만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지마가 사랑했던 그녀들은 그의 애정시의 실제 모델이다. 그의 첫 번째 시집은 『지마의시(志摩的诗)』에는 1922년 영국에서 귀국 후 1925년 출간까지 쓰여진 41수의 시가 있다. 그 가운데 임희음과 사랑이 그의 작품에서 감상주의

121) 조동구, 앞의 논문.

적 색채가 짙은 뛰어난 애정시로 나타나고 있다. 『지마의시(志摩의詩)』 에
는 그 당시 그의 애정의 궤적이 표출되고 있으며, 또한 그 시작의 가장 큰
원동력이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다.¹²²⁾

서지마의 본격적인 시 창작의 시발점은 케임브리지 유학 시절에 임희음을
만나 사랑하게 되면서부터이다. 많은 연구가들도 서지마가 임희음을 사
랑하게 된 것이 그의 인생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또는 절대 유일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¹²³⁾ 임희음을 사랑함으로서 오래 동안 수면 상태에
있었던 서지마의 낭만적인 사랑이 폭발하였다.

임희음과 사랑에 빠진 서지마는 장유의와 1922년 3월 베를린에서 정식
으로 이혼하였다. 1922년 11월 『신저강』의 문예면에 자신의 이혼을 알
리고 「서지마·장유의 이혼 통보」를 창작시와 「웃음으로 번뇌의 매듭을
풀고-幼儀에게(笑解煩惱結-送幼儀)」과 함께 게재하였다.

어때? 드디어 끝나버렸구나. 번뇌의 어려운 매듭, 번뇌의 쓴 매듭.
그래, 지금 활짝 웃고 손을 잡고 위로하자;
이제부터 맑은 바람, 높은 태양, 자유로운 풍경을 찬미한다.
뒤에서 기쁜 환성이 들린다, 매듭이 풀렸다고,
고뇌가 사라졌다고!

- 「웃음으로 번뇌의 매듭을 풀고-幼儀에게」 중에서¹²⁴⁾

122) 허세욱, 『중국현대시연구』, 명문당, 1992.

123) 高恒文, 桑农, 『徐志摩与他生命中的女性』, 天津人民出版社, 1999.

124) 이 시는 총 네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 네 번째 문단을 인용
하였다.

一. 這煩惱結, 是誰家扭得水尖兒難透/這千縷萬縷煩惱結是誰家忍心機織? 這結里多少淚痕
血痕, 應化沉碧!/忠孝節義-咳, 忠孝節義謝你維繫/四千年史體不絕/卻不過把人道靈魂磨
成粉屑/黃海不潮, 昆侖歎息/四萬萬生靈, 生死神滅, 中原鬼泣/咳, 忠孝節義!

二. 東方曉, 到底明復出/如今這盤糊塗賬/如何清結?

三. 莫焦急, 萬事在人為, 只消耐心/共解煩惱結/雖嚴密, 是結, 總有絲縷可覓/莫怨手指兒

위의 시에서 서지마는 마치 두 사람의 이혼을 자축이라도 하듯이 시종 경쾌한 분위기에 빠져있다. 시의 전체내용을 보면 그는 자신의 혼인에 대한 고통을 몇 가지 역사 문화의 죄에도 결부시키고 있다. 또 이 시에는 둘의 이혼에서 생기는 감정의 상태를 굳이 은폐하거나 미화시키지 않고 있다. 서지마와 장유의와 합의 이혼은 당시 사회의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되는데 호괄(胡适)은 서지마의 이러한 일은 그의 단순 이상의 추구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다고 평했다.

서지마는 장유의와 이혼을 통해 봉건제도의 관습이 맺어 놓은 고통의 매듭을 풀고서 맑은 바람, 높은 태양, 자유로운 풍경을 찬미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동경했다. “그는 사랑이 없고 또한 자유가 없는 가정은 그들의 인생을 파산시킬 수 있기에 이혼의 결심을 하였고, 자유를 자유로서 보상받아야 하고, 자유로서 그들의 진정한 생명,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사랑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다.”¹²⁵⁾와 같아 호적의 서지마의 대한 회고에서 진정한 사랑, 자유를 갈망하는 서지마의 이상에 대한 꿈꾸기를 엿볼 수 있다.

임휘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지마는 시인이 되고 말았다. 임휘음을 만난 1년 동안 이미 전공에 흥미를 잃었지만 시인으로서 서지마는 천부적인 재능과 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여기에 사상의 고통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시인이 되기에는 충분한 조건인 것이다.¹²⁶⁾

，眼珠兒倦/可不是抬頭已見，快努力！

四. 如何！毕竟解散，烦恼难结，烦恼苦结/来，如今放开容颜喜笑，握手相劳/此去清风白日，自由道风景好/听身后一片声欢，争道解散了结儿，/消除了烦恼！—「笑解煩惱結—送幼儀」—1922.

(陈從周, 『徐志摩年譜』 第一卷, 笑解煩惱結—送幼儀, 上海書店, 2000, 387~388면.)

125) “他覺得那沒有愛又沒有自由的家庭是可以摧毀他們的人格的，所以他下了決心，要把自由償還給自由，要從自由求得他們的真生命，真幸福，真；真戀愛。”(張放·陳紅, 『追悼徐志摩』, 百花文藝出版社, 2000, 9면.)

126) ‘说到我自己的写诗，那是再没有更意外的事了，.....在二十四岁之前我对于诗的兴味还不如我对于相对论或民约论的兴味，.....’(徐志摩, 『猛虎集·序』, 『我所知道的康桥』, 中国画

我是天空里的一片云，
偶尔投影在你的波心—
你不必讶异，
更无须欢喜—
在转瞬间消灭了踪迹。

你有相逢在黑夜的海上，
你有你的，我有我的，方向；
你记得也好，
最好你忘掉，
在这交会时互放的光亮！

— 「偶然」 127)

나는 하늘의 한 조각 구름,
이따금 그대의 일렁이는 마음에 비치더라도—
놀랄 필요 없어요,
기뻐할 필요는 더더욱 없고요—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테니.

그대와 나는 어두운 밤바다 위에서 만났지만,
그대에게는 그대의, 나에게는 나의 방향이 있으니,
기억해도 상관없지만,
가장 좋은 건 잊어버리는 게요,
우리가 만났을 때 쏟아졌던 그 눈부신 광채들일랑!

— 「우연」 128)

出版社, 2015, 225 .)

127) 이 시는 서지마가 임휘음을 추억하며 쓴 것이다.(徐志摩, 앞의 책, 227면.)

128) 이경하, 앞의 책, 108면.

이 시는 1926년 5월에 지어져, 1926년 「신보부전·시전」 제9호에 발표되었다. 사실 이 시는 서지마가 그의 첫사랑이었던 임희음을 생각하며 쓴 것이다. 시의 내용과 같이 임희음과 서지마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감정 중의 하나의 별이었으며, 그 별은 퇴색한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더욱 밝은 빛을 발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먼저 서지마가 그녀의 아버지 임장민을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임희음은 「서지마를 추모하기(悼志摩)」의 글에서 “서지마와 저의 아버지는 말이 잘 통했어요. 비록 그들은 나이 차이가 많았으나 만나서부터 그들은 서로가 절친한 친구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¹²⁹⁾라며 두 사람의 관계를 회상하고 있다. 그러난 서지마는 임장민과 친해지면서 임희음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처음 서지마는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지만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표현하지는 못했을 것이라 짐작한다. 나이 차이뿐만 아니라 서지마는 이혼하기 전으로 유부남이었으며, 또한 임희음의 아버지와는 절친한 관계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서지마는 직접적으로 그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 서지마는 임희음을 향한 그의 누를 수 없는 감정을 쏟아 부을 곳이 필요했고 그것은 바로 그의 폭발적인 시 창작으로 나타났다.¹³⁰⁾

나의 시정(詩情)은 정말이지 마치 산사태와도 같이 방향을 가리지 않고 마구 쏟아졌다. 내가 처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 반년 동안, 생명은 어떤 위대한 힘에 뒤흔들렸으며 무슨 성숙이나 미성숙이니 하는 생각은 모두 잠깐 사이에 찬연한 화우(花雨)로 흩어져 버렸다.¹³¹⁾

129) 徽因, 「悼志摩」, 『你是那人家的四月天』, 中国华侨出版社, 2015.

130) 최용노, 「서지마의 애정시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13, 23면.

131) 只有一个时期我的诗情真有些像是山洪暴发, 不分方向的乱冲. 那就是我最早写诗的那半

호궈(胡适)이 서지마에 대한 ‘단순한 신앙(사랑, 미, 자연)’ 만 추구하는 시인이라고 평가를 하였다. 사랑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지마는 시인이 되었고 천부적인 재능과 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我有一個戀愛；—
我愛天上的明星；
我愛他們的晶瑩；
人間沒有這異樣的神明。

在冷峭的暮冬的黃昏，
在寂寞的灰色的凌晨。
在海上，在風雨後的山頂—
永遠有一顆，萬顆的明星！

山澗邊小花草的知心，
高樓上小孩童的歡欣，
旅行人的燈亮與南針；—
萬萬里外閃爍的精灵！

我有一個破碎的靈魂，
像一堆破碎的水晶，
散佈在荒野的枯草里—
飽暖你一瞬間的殷勤。

，生命受了一種偉大力量的震撼，什麼成熟的未成熟的意念都在指顧間散作繽紛的花雨。
(徐志摩，『猛虎集·序』，『我所知道的康橋』，中國畫報出版社，2015，226)。

人生的冰激与柔情,
我也曾尝味,我也曾容忍;
有时阶砌下摔的秋吟,
引起我心伤,逼迫我泪零。

我袒露我的坦白的胸襟,
献爱与一天的明星,
任凭人生是幻是真
地球存在或是消滅—
天空中永遠有不昧的明星!

— 「我有一个恋爱」 132)

내겐 하나의 사랑이 있을 뿐—
하늘의 밝은 별을 사랑하고,
그 별들의 영롱함을 사랑합니다,
세상에는 이보다 특별한 성스러움이 없으니까요.

추운 늦겨울의 해 질 무렵에,
적막한 잿빛 새벽에,
바다에, 비바람이 지나간 후의 산꼭대기에—
하나의 밝은 별, 수많은 별들이 영원히 있습니다!

산골 개울가 작은 풀꽃의 지기(知己),
누각 위 어린아이의 즐거움,
여행자의 불빛과 나침반—

132) 운 계 엮음, 앞의 책, 184면.

아주 멀리서 반짝이는 여정!

내겐 산산조각 난 영혼이 있어요,
마치 한 더미 산산조각 난 수정처럼,
황야의 시든 풀 위에 흩어진 채—
짧은 순간이나마 그대의 정성을 마음껏 느꼈지요.

인생의 쓴맛과 단맛,
나 역시 맛보았지만, 나 역시 참고 견디며,
섬돌 아래 키투라미의 가을 울음에,
마음이 슬퍼져 눈물을 떨어뜨리곤 했습니다.

내 솔직한 속내를 밝히고,
온 하늘의 밝은 별에게 사랑을 바치렵니다.
인생이 환상이든 진실이든,
지구가 존재하건 사라지건 간에—
하늘엔 영원히 어두워지지 않을 밝은 별이 있으니까요!

— 「나겐 하나의 사랑이 있을뿐」 133)

『서지마 시 전집』에서는 이 시의 창작연도를 1925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지마의 시에는 이상과 희망을 상징하는 ‘별’이 자주 등장한다. 시인은 별을 자신의 이상으로 형상화하여 이상적인 인생을 선언한다. 즉, 그에게는 하나의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별인 것이다. 그 별은 차가운 겨울의 황혼이나 적막한 회색빛의 새벽에도, 바다와 비바람 스쳐 지나간 산 위에서도 시공을 초월하여 시인이 숨을

133) 이경하, 앞의 책, 91면.

취고 있는 이 땅을 비추고 있다. 그래서 시인은 하늘의 별을 향해 가슴을 열어 자신이 간직한 사랑을 바치며, 그 별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인생의 포부를 밝힌다.

서지마가 노래한 별은 곧 절망의 어두움 속에서 발견되는 한줄기 희망과도 같은 것이다.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어두움 속에서 찾아낼 수 없다. 어두움은 빛이 비쳐질 때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사랑하는 여인을 ‘하늘에 맑은 별’ 이라고 비유하며, 그녀에 대한 사랑을 1연에 담아 자신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세상에는 이보다 특별한 성스러움이 없으니깐요.’라고 표현한 구절에서 그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다. 즉 서지마에게 ‘사랑’은 세상 어느 것 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이며, 그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그는 사랑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 서지마에게 ‘이상’으로서의 사랑은 ‘별’처럼 밝고 영롱하게 반짝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인 것이다. 별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초월적이고 천상의 이미지가 된다. 따라서 별의 공간은 인간이 도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함부로 근접할 수도 없는 초월적 이상공간이다.

시인은 사랑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그 깨달음은 생애 처음 느낀 사랑의 감정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 그에게 사랑이란 세상천지에서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랑’ 이었다. 그리고 그가 삶을 살아야 하는 절대적이고 가장 큰 이유였다. 그는 사랑이 별처럼 영원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의 인생의 지남침으로써 그가 살아갈 방향이라고 고백한다.

1924년 12월30일, 서지마는 「눈꽃의 즐거움(雪花의快樂)」이라는 시를 썼다. 이 시는 서지마가 육소만과 사랑에 빠진 후 쓴 첫 번째 작품이다.

假如我是一朵雪花,

翩翩的再半空里瀟灑，
我一定認清我的方向—
飛揚，飛揚，飛揚，—
這地面上有我的方向，

不去那冷寞的幽谷，
不去那淒清的山麓，
也不去荒街去惆悵—
飛揚，飛揚，飛揚，—
我看，我有我的方向！

在半空的娟娟的飛舞，
認明了那清幽的住處，
等著她來花園里探望—
飛揚，飛揚，飛揚，—
啊，她身上有硃砂梅的清香！
那是我憑藉我的身輕，
盈盈的，沾住了她的衣襟，
貼近她柔波似的心胸—
消融，消融，消融—
融入了她柔波似的心胸！

— 「雪花의快樂」 134)

내 만일 한 송이 눈꽃이라면,
훨훨 춤추며 하늘을 시원스레 날리랴,

134) 윤 계 엮음, 앞의 책, 146면.

내 분명 내 갈 곳을 알기에-
훤, 훤, 훤 날아가리-
이 땅 위에 내 갈 곳이 있으니.

춤고 적막한 골짜기에는 가지 않으리,
쓸쓸한 산기슭에도 가지 않으리,
삭막한 거리로 나가 실망하지도 않으리-
훤, 훤, 훤 날아가리-
보게나, 내겐 내 갈 곳이 있으니!

하늘에서 너울너울 춤추며 날아다니다,
저 맑고 고요한 거처를 찾았네,
그녀가 회원으로 방문하기를 기다리며-
훤, 훤, 훤 날아가리-
아, 그녀 몸에 깃든 붉은 매화의 맑은 향기여!

나의 가벼운 몸으로,
사뿐히 그녀의 옷섶을 적셨을 때,
그녀의 물결 같은 부드러운 가슴에 꼭 달라붙어-
사르르, 사르르, 사르르-
잔물결 같은 그녀의 가슴에 녹아들리라!

- 「눈꽃의 즐거움」 135)

이 시는 1924년에 지어졌고, 1925년 『현대평론』에 발표되었다. 1920년대 초반 서지마의 이상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그의 첫 시집 『지마의시

135) 이경하, 앞의 책, 74면.

(志摩的诗)』 첫 장에 수록된 작품이다.

위 시에서 시인은 1인칭 시점으로 서정적 자아인 ‘나’를 ‘눈꽃’에 비유하며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다는 이상과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갈망을 표현했는데, 동일 단어를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시각적 효과와 낭독했을 때의 청각적 효과를 동시에 얻었다.

서지마는 자신을 ‘일타설화(一朵雪花)’에 비유했다. 눈은 속성상 녹게 되어 있고 녹는 순간까지 선택한 곳을 도달하기 위해 자신이 소멸되는 것까지 감수한다. 시속의 ‘그녀’는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 육소만에 이견이 없는 것 같다.¹³⁶⁾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가볍게 날아오르는 눈꽃은 사랑에 대한 자신으로 충만한 서지마 자신의 기쁨이다. 또한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찾아 날아가는 눈꽃은 그의 선명한 사랑에의 의지를 상징한다. 즉 그를 괴롭혔던 고통에서 벗어나 마침내 자신의 의지대로 성령의 자유를 마음껏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는 진정한 사랑을 느낀 시인의 기쁨을 그리고 있는 동시에 자유와 해방도 표현하고 있다. 모든 구속과 억압을 초월하는 대상으로 눈을 선택했고, 그 눈의 飛上으로 ‘성령의 자유’를 직접 비유했다.¹³⁷⁾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서지마의 애정시가 정신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육체적 측면도 부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 시적 표현은 임휘음을 대상으로 쓴 시들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마의시(志摩的詩)」에서 사랑은 그에게 ‘별’이 되었다. 그 전 시 「눈꽃의 즐거움(雪花의快乐)」에서 서지마는 ‘눈’이 되어 그녀의 가슴으로 날아가 그녀의 마음속으로 녹아들었다. 그러나 「나는 모릅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我不知道风是在哪一个方向吹)」이 시기 서지마는 그가 가

136) ‘诗为徐志摩与陆小曼热恋中所作’ 宋益乔, 『徐志摩的女性情感世界』, 中国致公出版社, 2001, 209면.

137) 허세욱, 앞의 책, 357면.

야 할 방향을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다.

我不知道风
是在哪一个方向吹—
我是在梦中，在艖的轻波里依洄。

我不知道风
是在哪一个方向吹—
我是在梦中，
她的温存，我的迷醉。

我不知道风
是在哪一个方向吹—
我是在梦中，
甜美的梦里的光辉。

我不知道风
是在哪一个方向吹—
我是在梦中，
她的负心，我的伤悲。

我不知道风，
是在哪一个方向吹—
我是在梦中，
在梦的悲哀里心碎！

我不知道风



是在哪一个方向吹—
我是在梦中,
暗淡是梦里的光辉。

— 「我不知道风在哪一个方向吹」 138)

나는 모릅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꿈속에서,
꿈의 찰랑이는 물결 속에 휘돌아 흐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꿈속에서,
그녀의 부드러움에, 도취되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꿈속에서,
달콤함은 꿈속의 찬란한 빛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꿈속에서,
그녀의 배신에, 나는 슬퍼했습니다.

138) 윤 계 엮음, 앞의 책, 246면.

나는 모릅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꿈속에서,
꿈속에서의 슬픔에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꿈속에서,
어둠은 꿈속의 찬란한 빛입니다.

- 「나는 모릅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139)

이 시는 1928년 초에 지어졌고, 같은 해 3월 『신월』 창간호에 발표되었고 세 번째 시집 『맹호집』에 수록되었다. 이 시기 서지마는 가정불화로 고통 속에서 지냈다. 그림과 춤에서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보인 육소만은 쇼핑과 아편 흡입 등 사치와 무분별한 생활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그의 부모는 경제적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그와 육소만의 결혼을 인정한지 않았다. 당시 이와 같은 심리적 상태에서 실연의 아픔을 그린 이 작품을 짓게 되었다. 이 시는 실연의 아픔을 작품에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기 서지마는 가정불화로 고통 속에 휩싸여 자신이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방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에서 사랑의 대상은 처음에는 나를 도취시켰다. 그 사랑에 도취되어 ‘달콤함(甜美)’를 맛보는 것도 잠시, 그녀의 배신을 시인은 깊은 슬픔에 빠지고 ‘꿈속에서 찬란한 빛(梦里的光辉)’은 암담으로 변질된다. 사랑이 완성되면 더 이상의 고통이나 슬픔은 사라질 것으로 믿었던 시인에게 현실

139) 이경하, 앞의 책, 113면.

은 그를 당혹스럽게 만들어 언제부터인가 찾아온 고통, 배신, 슬픔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디로 자신이 향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지금까지 김소월의 시 3수와 서지마의 시 4수를 분석하였다. 김소월의 시 분석을 통해 소월의 시에서 사랑하는 ‘님’과 이별과 ‘한’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다. 김소월은 조선 민족의 가슴 속에 맺힌 사랑과 외로움 그리고 슬픔과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이다. 때문에 그의 작품에는 이별과 한의 정서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서지마의 작품에는 그리움과 애원의 정서가 담겨 있었다. 서지마가 상상하는 낭만적인 사랑과는 달리 그의 사랑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의 것으로 그리움과 애원만이 작품에 투영되고 있었다.

2. 자연 인식과 세계관

문학에서 자연이란 무엇인가? 도가 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연이란 고유명사가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는 일반적인 상태나 모양을 말한다.¹⁴⁰⁾ 서양의 자연관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과도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당연시하고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보는 정복지향적인 자연관이다. 이런 서양의 자연관과 달리 동양적인 관점은 줄곧 자연을 생성, 변화하는 생명체로 보며,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는다. 동양에서 자연이란 개념 자체는 서양의 'nature'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서양의 'nature'와 비슷한 단어는 “자연”이 아닌 “천지(天地)”이다.¹⁴¹⁾ 한문의 “自然”은 현대어의 “自然”과 다르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자연은 고정된 명사로 쓰인 적이 없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한문의 자연은 현대어로 번역될 때 “스스로 그러하다”로 번역되어 마땅한 개념이다.¹⁴²⁾

철학적으로 보자면 자연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선형적인 자연이다. 이때 자연은 의식에 대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물들과 그것들의 모든 형식의 현상태이며, 사회와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물의 자연적인 운동형식의 전체이다. 자연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전 우주를 지칭하며, 인간에 의해 변형되지 않은 인간 이외의 모든 현상을 의미한다. 즉 선형적 자연이란 인간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날 때 이미 주어져 있었고,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현상 전체를 일컫는 개념이다.

두 번째는 경험적 자연이다. 이때의 자연은 인간의 경험의 대상이 되는

140) 장기근, 『老子 25장』, 삼성출판사, 1986,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141) 김용욱,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통나무, 1989.

142) 신현락, 『한국 현대시와 동양의 자연관』, 한국문학사, 1998.

자연 현상의 총체이다. 인간의 생활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은 인간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인간에 의해 창조, 변형된다.¹⁴³⁾

김소월은 그 누구보다도 자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이를 시로 형상화한 시인이다. 이러한 점은 소월이 탄생하고 성장한 고향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소월이 태어나고 성장한 곳은 평북 정주군 광산면 남단리였다. 마을 뒤로는 8대 명산인 능한산을 지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발원한 시냇물은 소월이 집 앞을 지나 서해로 흘러들었다. 이렇게 산과 들, 바다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이 소월의 고향이었던 것이다. 고향의 아름다운 산천은 성장한 소월에게 늘 그리움의 대상이었으며 그의 시의 주요한 소재로 등장하게 된다.¹⁴⁴⁾

서지마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바다와 산이 둘러싸는 아름다운 중국 절강성 해녕시(浙江省海寧市)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유학할 때 그 주변에 아름다운 경치는 서지마에게 중요한 시 창작 소재가 되었다.

두 시인은 도시적인 사물들보다는 토속적이고 민속적이고 향토적인 자연물을 즐겨 다루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다.

1) 자연과의 거리와 비극적 세계 인식

널리 읽혀지고 있는 김소월의 시 「산유화(山有花)」 같은 작품에서는 비애의 심정을 나타내는 시상이 표면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사실은 훨씬 더 그러한 뜻을 깊게 인식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다. 그것은 자연의 존

143) 신현락, 위의 책.

144) 김영철, 『김소월』, 건국대학교 출판부, 1983.

재에 대한 근원적이거나 또는 매우 소박한 인식이기는 하나 그 속에는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의 개인적 특질이 숨어 있기에 보편적인 연민의 정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산에는 꽃피네
꽃치피네
갈 봄 너름업시
꽃치피네

산에
산에
피는꽃춘
저만치 혼자서 피어잇네

산에서우는 적은새요
꽃치췌와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지네
꽃치지네
갈 봄 너름업시
꽃치지네

— 「山有花」 145)

145) 김용직, 『김소월전집』, 서울대학교출판사, 1996, 180면.

김소월의 작품 중 자연에 대한 비극적 의식을 보이는 작품으로 대표적인 것이 「山有花」이다. 이 작품에서는 다른 시와 달리 비애의 감정이 표면화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훨씬 더 그러한 뜻이 깊이 내재해 있다. 그의 자연에 대한 태도는 소박하면서도 근원적인 비극적 관점이 내포되어 산에 대한 연민의 정을 표상한다.

1연에서는 계절의 순환에 따라 언제나 꽃이 피는 사실을 말하고, 이는 꽃이 피는 계절의 항구서관 영원성을 암시하면서 영원불멸의 존재로서의 자연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연에서는 꽃이 피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저만치”의 시어에 대한 견해는 김동리는 나와 꽃과의 거리, 다시 말해 ‘청산과 시적 화자와의 거리’라고 지적한 바 있고, 오세영은 ‘산유화는 자아와 세계의 불연속을 잘 표상해 주고 있다. 시인은 자연과 합일하려 하지만 항상 ‘저만치’의 거리 밖에서 ‘거부당한다’고 하였다.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는 화자와 대상인 꽃과의 거리감을 나타낸 것이며, 그 거리는 존재의 외로움을 반영한 심리적 좌절감을 내포하고 있으며, 동시에 “작은 새”와 동류감을 유발하게 하여 새나 꽃들의 존재에 대한 우주적 연민¹⁴⁶⁾을 나타내고 있다.

문덕수는 ‘저만치’를 ‘추상적 거리’라고 명명하며 ‘그것은 소월이 자연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했음을 증거하는 거리이며 현실을 완전히 초탈하여 열악의 자연 속으로 몰입하여 일체가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고 보았다.¹⁴⁷⁾

성기조는 「산유화」에 등장하는 새와 꽃을 인간과 동격존재로 보며 자연의 순리 속에서 자족하는 세계를 표상한다고 보며, 시인 자신과 보아는자인 꽃의 관계, 즉 보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나와 나아닌 다른 세계에서 만나고 풀리는 현상으로서 자연의 조화로운 세계를 드

146) 김종길,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심상』 4월호, 심상사, 1974, 22면.

147) 문덕수, 「소월에 있어서의 임·자연·향수」, 김열규 외 『국문학론문선』, 민중서관, 1977, 163면.

러낸다고 보았다.¹⁴⁸⁾

산산히 부서진이름이어!
虛空中에 헤어진이름이어!
불너도 主人업는이름이어!
부르다가 내가 죽을이름이어!

心中에남아잇는 말한마되는

끗끗내 마자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든 그사람이어!
사랑하든 그사람이어!

붉은해는 西山마루에 걸니웠다.
사슴이의무리도 슬피운다.
떠러져나가안즌 山우해서
나는 그대의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소리는 빗겨가지만
하늘과땅사이가 넘우넓구나.

선채로 이자리에 돌이되여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이름이어!

148) 성기조, 소월의 산유화에 관하여, 『한국현대시인 연구』, 동백문화사, 1990, 44~49면.

사랑하든 그사람이어!

사랑하든 그사람이어!

- 「초혼」 149)

이는 1925년 12월 펴내 김소월 시집 『진달래꽃』에 수록된 이래 김소월의 대표작으로 널리 애송되고 논의된 시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한 논의는 흔히 시제인 ‘초혼’의 해설로부터 시작된다. 유교식 상례 절차인 고복을 민간에서는 ‘초혼’ 또는 ‘혼 부른다’고 한다. 초혼은 죽은 이의 종이나 신분이 천한 사람이 망자의 집에 지붕에 올라가 북쪽을 향해 망자의 옷을 흔들면서 사자의 이름을 부르는 상례절차이다. 이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혼이 나간 것이라 믿고, 나간 혼을 불러서 재생시키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망자가 숨을 거두면 곡을 하고 이어서 초혼을 행한다. 초혼은 어디 사는 아무개 복이라고 세 번 외친다. 이는 동네에 상사를 알리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례 절차인 ‘초혼’은 이 작품의 해석에 크게 도움을 주진 않는다. 상례의 ‘초혼’은 하인이나 천한 사람이 망자의 죽음 직후 망자집의 지붕에 올라가 북쪽을 향하여 외치는데 반하여, 시작품의 「초혼」은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한 사내가 아마도 장례 후에 ‘떨어져 나가 앉은 산위에서’ ‘서산마루’를 향하여 부른다. 그리고 ‘초혼’이 사자의 재생을 의도하는 형식적인 부름이거나 동네에 부음을 알리는 광고인 데 반하여 「초혼」은 사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절망적인 몸부림이면서 사자에게 사랑을 호소하는 메시지이다.

화자는 연인의 죽음에 상심하여 아무도 없는 산에 올라 연인의 죽음의

149) 김용직, 앞의 책, 145면.

의미를 명상하면서 나직이 중얼거리고 있다. 이제 망인의 이름은 ‘산산히 부서진 이름’이고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고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되었다.

이름은 사물의 존재 가치이고 의미이며 기억이다. 그 이름이 허공중에 헤어져 버렸다. 허공중에 널리 퍼져 무명(無名)이 된 것이다. 무명은 존재 가치와 의미의 상실이다. 가루가 된 이 이름은 허공중에 헤어졌다. 헤어짐은 흩어짐과 더불어 이별을 의미한다.¹⁵⁰⁾

제1연에서 ‘초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광인처럼 목 놓아 죽은 연인을 부르는 화자 대신에 죽은 여인에 대한 기억을 떨쳐버리려 하지만 어찌지 못하고 그녀를 부르는 정상적인 화자의 모습을 본다. 제2연에서는 임의 상실로 인한 나의 영향을, 제3연에서는 상실의 충격이 일몰과 사슴을 음으로 대표되는 ‘세계’로 까지 확산되었음을 나타낸다. 이어 제 4연에서는 이미 임의 상실이 수습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임을 인식하는 상황이 표출된다. 그러나 좌절을 좌절로서 끝내지 않으려는 나의 단단한 의지가 5연에서는 매섭게 표현된다.

또한, 이 시에 나타난 임은 경험적 연인이 아니라 소월이 궁극적으로 갈구한 지향점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이렇게 임을 확대시켜 본다면 이 작품에서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다’는 좌절적 인식은 절망의 넘두리가 아닌 이상과 현실, 자아와 세계 사이의 거리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가 값진 절창으로 두고두고 애송되는 이유는 바로 망부석 모티브를 빌려 쓴 마지막 연에 있다. 임과 나의 처절한 거리감을 인식했지만 ‘선 채로 돌이 되어도 / 부르다가 내가 죽을 그 이름이여’라고 외치는 것에서 보다 더 큰 비장함을 느낄 수 있다. 김소월이 많은 대중적 사랑을 받아온 이

150) 오하근, 한국 현대시 해석의 오류 - 김소월 초혼의 경우, 『한국언어문학』 제47집, 2001, 367~379면.

유는 한(恨)의 논리로 요약되는 민족적 정서와 많이 닿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라는 믿음에 의거하여 떠난 혼을 불러들여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려는 간절한 소망이 예의화 된 것을 초혼이라고 한다. 소월은 삶과 죽음을 동일하게 여겼으며, 인간의 죽음을 자연의 질서로 받아들였다. 결국 삶도 죽음도 하나의 길 위에 있으며, 그 길은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로 순응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다. 이 시에서 그는 삶과 죽음을 동일하게 바라보면서 현실에 대한 절망에서 오는 한이 담긴 채 님의 죽음을 처절하게 노래하는 한의 정서가 깊게 나타난다.

이 시는 첫 행부터 ‘산산히 부서진 이름이여’라고 격양된 감정으로 외치고 있다. 님의 죽음이 산산히 부서진 이름이 되어버림으로써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에 김한호는 이 부분을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대여’가 아닌 ‘산산히 부서진 이름’이라고 한 까닭에 대하여 이는 목숨이 다한 개인의 죽음이라기보다는 타의에 의해 짓밟힌 주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며 산산히 부서진 이름,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의 주체는 바로 멸망해버린 조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⁵¹⁾

이는 박두진이 「초혼」에서 소월이 지닌 내적 세계의 인 것을 향해서 부정적인 한과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든 할 수 없는 절망을 극복하지 못한 채, 끝끝내 스스로 생명을 포기, 단절하게 된 민족시인의 영혼의 비극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다.¹⁵²⁾

151) 김한호, 『슬픈 시인의 노래』, 문예마당, 2000, 69~72면.

152) 박두진 「김소월의 시」, 『한국현대시론』, 일조각, 1973.

2) 자연 동화와 순응

앞에 언급했듯이 서지마는 1920년 영국에 유학할 때 케임브리지대학의 아름다운 자연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시를 창작했다. 유학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온 서지마는 시작(詩作) 활동을 계속해 중국 현대시를 크게 발전시켰다. 이러한 서지마 시창작의 기저에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영향을 받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을 함께 한다. 일반적으로 시인은 인간의 삶과 함께하는 자연을 존경하고 찬양하거나 자연과 일체된 마음을 작품으로 형상화한다. 서지마의 작품에서도 이러한 면모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케임브리지의 고요한 물결, 새의 아름다운 울음소리, 푸른 숲과 흰구름 등이 자주 등장해 서지마의 자연관을 엿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의 시 속에 등장하는 자연은 자연의 영성성이 담겨있다. 다음 작품은 자연을 대하는 서지마의 태도가 잘 담긴 작품 「다시 케임브리지와 이별하며」 이다.

轻轻的我走了，
正如我轻轻的来；
我轻轻的招手，
作别西天的云彩。

那河畔的金柳，
是夕阳中的新娘；
波光里的艳影，
在我的心头荡漾。

软泥上的青荇，
油油的在水底招摇；
在康河的柔波里，
我甘心做一条水草。

那树荫下的一潭，
不是清泉，是天上虹；
揉碎在浮藻间，
沉淀着彩虹似的梦。

寻梦？撑一支长篙，
向青草更青处漫溯；
满载一船星辉，
在星辉斑斓里放歌。

但我不能放歌，
悄悄是别离的笙箫；
夏虫也为我沉默，
沉默是今晚的康桥！

悄悄的我走了，
正如我悄悄的来；
我挥一挥衣袖，
不带走一片云彩。

— 「再别康桥¹⁵³⁾」

153) 윤 계 엮음, 앞의 책, 259면.

살며시 떠나가네,
살며시 왔던 것처럼,
살며시 손을 흔들며,
서쪽 하늘가의 구름과 이별하네.

강가의 저 금빛 버들은,
석양 노을 속의 새색시,
물결 사이로 고운 그림자가,
내 마음속에 일렁이네.

부드러운 진흙 속에 피어난 푸른 연꽃,
매끄럽게 물밑에서 자태를 뽐내니,
케임브리지 강의 잔잔한 물결 속에,
한 가닥 물풀이고 싶어라!

저 느릅나무 그늘 아래의 깊은 못은
맑은 샘물이 아닌, 하늘의 무지개,
마름 사이로 부서져 버려,
무지개 같은 고운 꿈이 가라앉았네.

꿈을 찾아서인가? 긴 샷대로 물질하며,
푸른 풀보다 더 푸른 곳으로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
배에 한가득 별빛을 싣고,
아롱진 별빛 속에서 노래 부르리.

하지만, 나는 노래를 부를 수 없었네,

살며시 들려오는 이별의 통소 소리,
여름벌레도 나를 위해 침묵하니,
오늘 밤 침묵에 빠진 케임브리지여!

살며시 떠나가네,
살며시 왔던 것처럼,
옷소매를 휘 내저으며,
구름 한 점 제려가지 않으려고,

- 「다시 케임브리지와 이별하며」 154)

이 작품은 서지마의 대표작이다. 이 시는 시인이 1928년 11월 6일 두 번째 영국을 방문한 후 귀국길에 쓴 작품으로 1928년 12월 『신월』에 발표되었다. 시인은 1920~1922년까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2년 동안 공부하고 중국에 돌아왔다. 이후 1928년에 서지마는 다시 케임브리지 대학을 방문해 케임브리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서지마는 그 곳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지나간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지었다.

서지마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오게 된 것은 러셀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다. 1918년 서지마는 청운의 꿈을 안고 유학길에 올랐다. 미국 클라크대학 역사학과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명예 졸업하고, 1919년 뉴욕 컬럼비아 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해, 1920년 「중국 부녀의 지위를 논함」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동안에 러셀과 만나게 되었고 러셀에 대한 존경심으로 미국을 떠나 영국으로 따라갔다. 이때가 바로 서지마가 처음으로 케임브리지대학에 가게 된 때였다.

케임브리지대학에 있을 때, 서지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

154) 이경하, 앞의 책, 127면.

는다. 그것은 바로 1920년 겨울, 임장민과 그의 딸 임희음을 알게 된 것이다. 당시 서지마는 이미 중매결혼을 한 상황이었지만 임희음을 처음 만난 순간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이후 서지마는 그녀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견딜 수 없어 시로 표현하였다. 케임브리지대학의 아름다운 자연과 사랑하는 여인과 같이 있다는 것은 서지마의 시 창작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서지마는 자연을 인간의 모태로 인식한다. 자연을 떠난 인간을 부모를 잃은 고아에 비유하여, 자연 속에서 삶은 부모의 품속에서 쉬는 것으로 여기며 자연을 인간의 영원한 안식처로 생각했다. 그는 자연은 인간의 본성을 일깨우고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보았으며,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은 무수히 많은 신비를 간직한다고 보았다. 이에 서지마는 자연친화적인 삶을 예찬하며 자신을 자연숭배자라고 당당하게 주장한다.

이 시는 케임브리지의 아름다운 자연을 풍경화로 그려내고 있다. 시의 첫 연에 시인은 ‘살며시’를 연속으로 인용해서 그 깊고 깊은 애정은 이 단어 속에 숨겨 버린다. 시인의 눈에서 버드나무가 신부가 되는 것은 작가가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또 이별의 슬픔 속에 모든 것이 침묵이 되고 꿈이 되는 것이다. 서지마의 시는 대부분 서술방식이 열렬하지만 이 시는 그렇지 않다. 서서히 다정하게 서술하고 슬픈 감정을 억누르고 시의 정경을 매우 아름답고 슬프게 그렸다. 그 슬픈 정신을 회귀의 문학의 부호로 남긴다.¹⁵⁵⁾

지금까지 김소월과 서지마의 자연시를 분석하였다. 김소월과 서지마는 자연에 대한 시를 창작할 때 공통적으로 의인법과 대조법을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김소월의 작품 가운데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자연이 등장하는 일이 한 번도 없다. 즉, 자연을 위한 자연의 묘사는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밑바닥에는 언제나 인간적인 고뇌가 깔려있다. 그의 자연은 그 만큼 인간

155) 가 구, 앞의 논문, 68~69면.

적인 베일에 덮여 씌워져있다. 자연, 즉 대상과의 거리가 비교적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 「산유화」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적은 그대로 적용된다. 다시 말해 김소월에 있어서 그는 자연과의 거리를 언제나 유지하고 지키고 있다.

서지마의 시 작품들 중에서 자연을 찬양하기 위해 창작된 작품을 많이 찾아낼 수 있다. 또 서지마가 예찬한 자연은 근대 문명에 반대하며 문명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은, 문명사회의 때가 덜 묻은 농촌사람이나 순진한 어린이들을 더 자연스럽고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 그가 원하는 자연의 모습은 물질문명에 시들어 가는 자연이 아니다. 그가 제시한 자연의 모습은 인간 삶의 구원처로서의 자연이며 아름다움, 신비함, 여유로움이 존재하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넉넉함과 자애로운 모습의 자연이다. 따라서 서지마는 자연으로의 회귀를 통해 인간성의 회복을 꿈꾸며 근대문명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자연을 작품 속에 제시하고 있다.

3. 현실인식과 시적 대응

1920년대에 한국과 중국은 모두 비참한 시대였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김소월은 일본식민지 통치아래 억압받는 조선인이 처한 불평등과 폭압적인 사회 상황에 대한 분노가 드러나는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김소월은 나라를 잃은 현실을 인식하고 개인으로서의 한스러움과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의 설움을 더한 현실의 안타까움을 유교적 동포애를 담아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

중국의 경우는, 1920년대 서양자본주의가 중국을 분할하고 중국 각지에서 군벌들의 혼전을 벌여지고 시기였다. 서지마는 조국의 주권 상실에 대한 슬픔과 조국이 백성들이 겪은 모든 고통에 대한 분노, 혼란기 현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것을 인도주의적 민족애로 감싸는 태도를 시 작품에 담아냈다.

1) 고향 상실과 유교적 동포애

김소월은 흔히 민족시인이라고 불린다. 그 이유는 그는 애정시와 자연시를 썼을 뿐 아니라 강렬한 시대정신의 저항시도 창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항시는 조국을 잃은 현실을 인식하고 한스러움과 식민통치 하에 조선인들의 고통을 시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이러한 김소월의 현실인식이 담긴 대표적인 작품으로 「길」, 「우리 집」, 「바람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버섯대일땅이 이섯더면」이 있다.

어제도하로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가왓가왓 울며새엿소.

오늘은
또몇十里
어디로 갈까

山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곳이업서 나는 못가요.

말마소 내집도
定州郭山
車가고 배가는곳이랴오

여보소 공중에
저기러기
공중엔 길잇섯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기러기
열十字복판에 내가 섰소.

갈내갈내 갈닌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갈길은 하나업소.

어제도 하루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가왯가왯 울며새엿소.

오늘은
또 뗏十里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곳이업서 나는 못가요

말마소 내집도
定州郭山
車가고 배가는곳이라오.

여보소 空中에
저기레기
空中엔 길잇서서 잘가는가.

여보소 空中에
저기레기
열十字복판에 내가 섰소.

갈내갈내 갈난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갈길은 하나업소.

김소월 시에 내재되어 있는 절망과 허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는 이 시편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김소월이 삶을 영위하던 시기는 조국이 일제에 의해 식민통치를 받던 상황이었고 식민정책 등으로 민중이 핍박을 받거나 살 곳을 잃고 부유(浮游)하게 된 비극적인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길’을 잃고 ‘목적지’를 잃은 화자의 좌절과 방황은 화자 개인의 상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나라를 잃고 식민지민으로 전락한 민족의 보편적 정서로 확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조국을 상실했기 때문에 고향은 진정한 의미의 고향일 수 없었다.

‘길’은 인간의 현실적인 체험의 인식 공간일 뿐 아니라, 형이상학적 정신세계를 표상하는 구체적 대상으로서의 양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시에서도 ‘길’은 화자가 나아가야 할 현실세계의 공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식민지 시대 고향을 잃은 유랑민들의 방황과 상실의식을 드러내는 상징적 대상이기도 하다.

길의 부재의식은 1연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다. 시적 화자는 “어제도” 하루 밤을 울며 보냈는데, 어제도 그랬다는 것은 그전부터 계속 나그네 신세였다는 것이고 어쩌면 앞으로도 그럴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묻어나는 표현이다. 여기서 “가마귀”는 화자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객관적 상관물인데 화자도 “가마귀”도 집 없이 떠도는 나그네 신세인 것이다.

2연에서 화자는 오늘은 또 어디로 가야할까를 망설이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은”과 “또”라는 시어를 통해 시적 화자가 오늘뿐 아니라 그동안 쭉 갈 곳 없는 나그네 신세였음을 알 수 있다.

3연에 오면 화자가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 이유가 설명된다. 그것은 “오라는곳이업”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자는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156) 김용직, 앞의 책, 150면.

갈까.” 하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가 아니라 외진 곳을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시적 화자가 정작 가고 싶은 곳은 산도 들도 아닌 “오라는” 사람이 있는 고향 마을임을 알 수 있다.

4연에서는 화자가 가고 싶은 구체적 공간이 언급되는데 그 곳은 다른 아닌 “내집”이다. 정주 광산은 실제로 김소월의 집이 있는 고장인데 그렇다고 이 작품이 김소월 개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시적 화자가 김소월 자신이었다면 “차가고 배가는곳”인 고향에 언제든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는 집을 떠나와 정처 없이 방황하며 가고자 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유랑민의 비애를 그 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화자 자신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외적인 상황에 의해 귀향할 수 없게 된 당대의 시대적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5연과 6연에 등장하는 새는 같은 새이면서도 1연의 “가마귀”와는 대조적 의미를 지니는 “기레기”를 등장시켜 화자의 비극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가마귀는 화자의 처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상관물인데 반해 기레기는 화자와는 대비되는,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상이다. 시적 화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길은 공중을 나는 기레기와도 같은, 현실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길이기 때문이다. “갈내갈내 갈닌” “열십자복판에” 화자는 서 있지만 정작 그 많은 길 중에서도 화자가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특히 마지막 연에서 ‘길’의 반복과 함께 ‘갈’과 ‘길’의 교차가 짜내는 리듬감은 ‘기’음의 중복과 함께 갈갈이 찢어진 마음을 연상하게 한다. “바이”는 여기서 ‘길’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와 “업소”에 이중으로 걸려¹⁵⁷⁾ 길이 전혀 없다는 절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 작품에 드러나는 ‘길’의 부재의식은 물리적 차원을 넘어서서 식민지 시대에 귀향하지 못하고 유랑의 세월을 살아가는

157) 이기문, 『소월 시의 언어에 대하여』, 『한국문학의 현대적 해석』 2,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8, 191면.

우리 민족의 좌절된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다.¹⁵⁸⁾

이바루
외짜로 와 지나는사람업스니
「밤자고 가자」 하며 나는 안저라.

저멀니, 하느便에
배는 썩어나가는
노래들니며

눈물은
흘어나려라
스르르 내려감는눈에.

꿈에도생시에더 눈에 선한우리집
또 저山 넘어넘어
구름을 가라.

- 「우리집」 159)

시적 화자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곳은 “외짜로 와 지나는 사람업”는 곳이다. 거기서 그는 “밤자고 가자”며 주저앉는다. 화자는 삶의 터전인 ‘집’을 잃고 객지에서 떠돌고 있는데 그곳이 어디든 그에게는 밤이나 보낼 수 있는 장소에 불과하다. 또한 그곳은 사람의 발걸음이 드문 외진 곳이다. 어쩌면 화자 스스로가 집을 잃은 자신을 갈 곳 없어 떠도는 나그네로 인식하

158) 김소정, 앞의 논문, 2008.

159) 김용직, 앞의 책, 127면.

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에선 “저멀니, 하느便에”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며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서글픈 화자에게 “꿈에도 생시에도 눈에 선한” 우리 집은 구름이나 갈 수 있는 “저山” 너머에 존재할 뿐이다. 이 시에서 화자가 상실한 ‘집’은 단순히 먹고 자는 장소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집을 잃음으로 해서 화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따라서 ‘집’은 거주지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위한 기본적 요건이자 안정된 삶의 터전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우리 집과의 거리감을 표현한 “저멀니”, “저山넘어넘어”의 구절도 현실적으로는 돌아갈 수 없고 구름이나 갈 수 있다는 화자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도 ‘집’은 화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귀가 불가능한 공간으로 표현되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집으로의 회귀가 불가능할수록 그것을 잃은 상실감은 가중될 것이다.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즈란히
별까의하로일을 다맛추고
夕陽에 마을로 도라가는꿈을,
즐거히, 꿈가운데.

그러나 집일흔 내뎌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보섭대일쌍이 잇섯드면!
이처럼 써도르랴, 아침에 짐을손에
새라새롭은歎息을 어드면서.

동이랴 남북이랴
내뎌은 써가나니, 불지어다,

希望의반짝임은, 별빛치아득임은.
물결썸 써올나라, 가슴에 팔다리에.

그러나 엇지면 황송한이心情을! 날로 나날이 내압폐는
자춧가느른길이 니어가라. 나는
한거름, 쏘한거름. 보이는山비탈엔
온새벽 동무들 저저혼자.....山耕을 김매이는.

- 「바라건대는 우리에게우리의 보섭대일쌍이 잇섯더면」 160)

「바라건대는 우리에게우리의 보섭대일쌍이 잇섯더면」은 공동체 의식을 획득한 화자를 내세워 빼앗긴 땅을 회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는 일제의 농경지 수탈에서 비롯된 땅의 부재를 시의 모티프로 삼고 있다. 1924년 11월 24일 동아일보에 발표된 「나무리벌 노래」 역시 같은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시들이 발표되었던 시기에 일제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토지수탈정책을 펴 일본인의 토지점유는 점점 늘어나는 대신에 조선인은 반대로 땅을 빼앗겨 많은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다시 남의 집 머슴, 자유노동자, 실업자, 유랑민으로 되어갔다.¹⁶¹⁾

1연에서 화자는 꿈을 꾸다. 그는 친구들과 즐거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것은 꿈속에서일 뿐이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웃들과의 건강한 노동과 집으로의 귀향이 화자에게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다. 현실에서 화자는 “집일흔” 몸이며 “보섭대일쌍”이 없다. 아침저녁으로 정처없이 떠돌아야만 하는 이유는 집과 땅을 잃었기

160) 김용직, 위의 책, 132면.

161) 송건호, 『한국현대사론』, 한국신학연구소, 1979, 109면.

때문이다. 이때의 집은 단순히 개인적 삶의 공간이 아니라 일제에 의해 빼앗긴 우리민족의 터전이 된다. 노동의 대상이 되는 땅도 역시 공동체의 물질적 기반이 된다. 이 시에서 드러나는 땅에 대한 집념은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자 하는 민족의식과 다름없다.

3연에 오면 화자는 동서남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떠다니지만 결코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希望의반짝임”과 “별빛치아득임”은 집을 잃고 떠도는 삶 속에서도 “우리의보습대일쌍”을 찾아 나아가는 시적 화자의 국권회복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황송한이心情”이 될 수도 있다. 화자가 가야할 앞에는 나날이 “자춧가느른길”, 즉 어렵고 험난한 길이 가로놓여질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절망하지 않고 굳은 의지로 이겨내겠다는 각오를 보여준다. 이 비장한 의지의 표명은 4연에 “나는 나아가리라// 한거름, 쫓한거름”에서 강렬하게 나타난다. 산비탈에서 김을 매며 이른 새벽부터 땀을 흘리는 건강한 “동무들”의 모습은 조국 광복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임과 동시에 일제의 침략으로 초토화된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이기도 하다.

이 시는 김소월의 민족의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작품으로 집과 땅을 빼앗기고 정든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식민지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꿈을 잃지 않는 화자의 모습을 통하여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회복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2) 현실 비판과 인도주의적 민족애

서지마가 비록 이상주의자이고 자신의 시에서 이상 추구하고 관련된 내용을 많이 썼다고는 하지만, 그 역시 중국의 혼란기였던 5·4시기를 살았던 지식인이다. 서지마는 비록 그의 생활 시야가 좁았지만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회의 각종 병리 현상과 혼란한 군벌 간의 침략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생활이 어려워 도처를 떠돌아다니는 하층 백성들을 마주 보고, 그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큰 절망에 빠지는 등의 안타까운 혼란기 현실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선생님!선생님!」, 「빌어먹어도 짜다」, 「생활」을 통해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큰 절망에 빠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鋼絲的車輪

在偏僻的小巷內飛奔—

“先生，我給先生請安您哪，先生。”

迎面一蹲身，

一個單布掛的 顫動著呼聲—

雪白的車輪在冰冷的北風里飛奔。

緊緊的跟，緊緊的跟，

破爛的孩子追趕著鐵亮的車輪—

“先生，可憐我一大吧，善心的先生！”

“可憐我的媽，

她又餓又凍又病，躺在道兒邊直呻—

您修好，賞給我們一頓窩窩頭，您哪，先生！”

“沒有帶子兒，

坐車的先生說，車里帶著大皮帽的先生—

飛奔，急轉的變輪，緊追，小孩的呼聲。

一路旋風似的土塵

土塵里飛轉著晃晃的車輪—

“先生，可是您出門不能不帶錢您哪，先生。”

“先生！…先生！”

紫漲的小孩，氣喘著，斷續的呼聲—

飛奔，飛奔，橡皮的車輪不住的飛奔。

飛奔…先生…

飛奔…先生…

先生…先生…先生…

— 「先生！先生！」 162)

인력거의 철제 바퀴가

허름한 좁은 골목 안을 내달린다—

“선생님, 선생님께 문안드려요, 선생님!”

맞은편의 쭈그린 몸

흙저고리의 계집아이가 벌벌 떨려서 외치자만—

162) 운 계 엮음, 앞의 책.

새하얀 인력거 바퀴는 얼음같이 찬 북새풍 속을 질주할 뿐

바짝 뒤따르는 걸음, 바짝 뒤따르는 걸음

남루한 아이가 반짝이는 인력거 바퀴를 뒤쫓는다—

“선생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인정 많으신 선생님”

“우리 엄마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엄마가 배고파요, 온몸이 얼어붙은 채, 아파서, 길가에 누워 계속 신음만 하고
있어요—

선행을 베푸셔서, 워터우로 한 끼만 나게 해 주세요, 선생님.”

“동전이 없구나.”

인력거를 탄 선생이 하는 말, 인력거 안에 커다란 털모자를 쓴 선생—

내달리다, 갑자기 모통이를 도는 인력거 바퀴, 절박하게 뒤따르는, 어린아이의
외침.

온 길을 뒤덮은 회오리바람 같은 흙먼지,

흙먼지 속에 재빨리 돌아가는 은빛 인력거 바퀴—

“선생님, 그래도 외출하실 때 돈을 안 갖고 다니실 리 없잖아요, 선생님.”

“선생님...!선생님...!”

벌개진 아이가 혈떡거리며, 간간이 외치는 소리—

날듯이 달린다. 날듯이 달려, 인력거 고무바퀴가 씌 없이 돌아간다.

날듯이 달린다... 선생님

날듯이 달린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이 시는 1923년 11월에 창작되고 12월 『신보·문학순간』 20호에 게재되었다. 이 시와 「빌어먹어도 짜지」는 모두 중국이 비참하고 괴로운 현실 속에 처한 시기에 창작되었다. 1923년 겨울 서지마는 고향 샹시의 동쪽 산기슭에 있는 삼불후 사당에 머물렀다. 인근 사철의 공연 무대 밑에 한 무리의 거지 떼가 살고 있었는데, 서지마는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겨울옷을 나눠 주고, 그들과 어울려 한자리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고 한다.

이 시는 추운 한겨울에 얇은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멋진 차를 타고 가는 신사에게 구걸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아이의 어머니가 주리고 병들어 신음하지만 차안의 신사는 냉정하게 구걸을 거절한다. 달리는 차를 향해 숨을 헐떡이며 뒤따라가는 여자아이의 외침을 통해 시인은 겨울 날씨보다 더 차가운 당시 사회의 한 일면을 묘사하고 있다.¹⁶⁴⁾

“行善的大姑，修好的大爷，”
西北风尖刀似的猛刺着他的脸，
“赏给我一点你们吃剩的油水吧！”
一团模糊的黑影，捱紧在大门口。

“可怜我快饿死了，发财的爷，”
大门内有欢笑，有红炉，有玉杯；
“可怜我快冻死了，有福的爷，”
大门外西北风笑说，“叫花活该！”

163) 이경하, 앞의 책, 46면.

164) 정수국, 「서지마의 시세계 소고-최초 시집 《지마의 시》를 중심으로-」, 중국문학 연구, 1994.

我也是战栗的黑影一堆，
蠕伏在人道的前街；
我也只要一些同情的温暖，
遮掩我刚残的余骸——

但这沉沉的紧闭的大门：谁来理睬；
街道上只冷风的嘲讽，“叫花活该”！

— 「叫花活该」 165)

“자비로운 아주머님, 인자하신 어르신”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얼굴을 매섭게 할퀴는 북서풍,
“떡다 남기신 기름 찌꺼기라도 조금만 주세요!”
대문가에 바짝 붙어있는 흐릿한 검은 그림자 한 뭉치.

“부자 어르신, 배고파 죽겠으니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대문 안의 웃음소리, 따뜻한 난로, 옥으로 만든 술잔
“북 많은 어르신, 얼어 죽겠으니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대문 밖의 북서풍이 비웃으며 하는말, “빌어먹어도 짜지!”

나 역시 덜덜 떠는 한 덩이 검은 그림자,
인도 앞길에서 굶틀거리며,
약간의 따스한 동정을 원할 뿐이다,
뼈에 살을 바른 듯한 내 몸을 가릴 수 있도록...

165) 윤 계 엮음, 앞의 책, 105면.

하지만 굳게 닫혀 있는 이 대문, 누가 거들떠나 볼까나,
거리엔 "빌어먹어도 짜지"라는 차가운 발람의 조롱만 있을뿐!

- 「빌어먹어도 짜지」 166)

이 시는 1923년 겨울에 지어져 1924년 『신보 6주년 기념 증보판』에 발표되었다. 서지마는 흔히 ‘애정시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시와 바로 앞에 시 <선생님, 선생님>과 같은 작품을 통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의 생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서지마의 연민과 동정은 실제로 농촌 사회를 개혁해 보려는 시도로까지 확대되었다. 그의 몇몇 작품의 일면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농촌 개혁 운동을 펼친 서지마의 태도가 그의 심장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시는 대문 안의 마님과 나으리 대문 밖의 거지를 서로 대비시킴으로써 빈부의 참상을 효과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한 거지가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애걸하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바람만이 ‘거지야 꼴좋다’라고 대답한다는 시로, 구상이 독특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분위기 확대와 대비수법의 활용에 치중하였다.

이밖에 「蓋上幾張紙」에서는 얼어 죽은 아이의 어머니의 슬픔을 그렸고, 「一條金色的光痕」에서는 추위와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난 노파의 처참함을 등을 그린 시들에서 서지마의 이상은 당시 냉엄한 현실 속에서 무참히 깨어지고 어둠이 짙게 드리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제 2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호적의 술회처럼 단순신앙, 즉 사랑과 자유, 그리고 아름다움의 실현을 위해 서지마는 이상의 날개를 펼쳐 보이지만 어두운 현실에 부딪쳐 저지당하고 이러한 실망에서 생기는 고

166) 이경하, 앞의 책, 50면.

뇌, 감상을 노래하고 있다.

阴沉, 黑暗, 毒蛇似的蜿蜒,
生活逼成了一条甬道:
一度陷入, 你只可向前,
手扞索着冷壁的黏潮,

在妖魔的脏腑内挣扎,
头顶不见一线的天光,
这魂魄, 在恐怖的压迫下,
除了消灭更有什么愿望?

- 「生活」 167)

음침함과 어둠이, 독사처럼 꿈틀거리면,
생활은 층간의 가설 통로로 변해버려,
한번 들어서면, 전진만 가능할 뿐,
손으론 차가운 벽의 끈적거리는 습기를 더듬는다,

악마의 오장육부 안에서 몸부림쳐 보지만,
정수리 위로 한줄기 햇빛도 보이지 않으니,
공포의 억눌림 속에서, 이 영혼에,
죽음 말고 다른 어떤 소망이 가당키나 할까?

- 「생활」 168)

167) 윤 계 엮음, 앞의 책, 250면.

168) 이경하, 앞의 책, 117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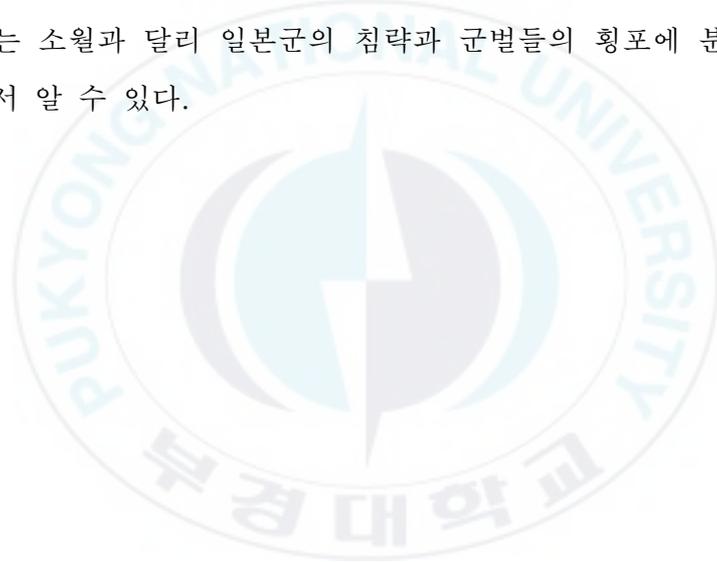
이 시는 호괄(胡适)을 통해 1930년 5월 29일에 지어진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1928년 지어져 이듬해 5월 『신월』 2권 3호에 발표된 것으로 밝혀졌다. 1924년 말 선배 부인이었던 루소만을 알게 된 후, 치명적인 사랑에 빠져 버린 서지마는 유부녀와의 사랑으로 베이징 문예계 인사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한순간에 촉망받는 문단의 실력자에서 문단의 문제아로 낙인찍혀 버렸다. 그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925년 루소만을 이혼시키고 이듬해 그녀와 축복받지 못한 결혼식을 올렸는데, 당시 주례를 맡았던 양기초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헤어지라”고 폭언할 정도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그 험난함이 예고되었다.

위의 시는 그의 삶이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창작되었고, 이 시를 통해 우리는 그가 얼마나 큰 절망에 빠졌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즈음 그의 시 세계에는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지만, 일부 초기 작품 속에 보였던 반항적 기질이나 세상의 모순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분노는 사라진 채, 어떤 기대나 “소망”도 꿈꾸지 않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김소월과 서지마가 활동했던 1920년은 한국과 중국 모두 암흑의 시기였다. 한국의 경우는 일제의 침략으로 인하여 식민지 사회로 전락이 되고 중국의 경우는 일본과 서양 열강의 압박을 받고 군벌 혼전으로 인해 반식민지 반봉건에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시대의 두 시인은 유사한 성장 배경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저항을 제대로 한 비슷한 시를 창작하였다. 김소월은 한의 정서를 대표하는 서정시인임에도 불구하고 애국저항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자신의 현실인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서지마도 낭만적인 서정시인으로 유명하지만 이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암흑기 시대를 묵인하지 않고 당대 현실을 직시

하며 그것을 작품에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김소월의 시 3수와 서지마의 시 3수에 나타난 현실인식에 대한 살펴보았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두 시인은 애국이나 저항에 대한 비슷한 시를 창작하였다. 본래 슬픈 서정시로 알려져 있는 김소월은 암담한 현실의 슬픔과 절망적인 감정을 표현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낭만적이었던 서지마는 현실에 대한 폭발하는 감정으로 표현하였다. 주제의식의 공통점 이외에도 두 시인은 시의 소재를 고를 때 모두 무덤, 굶주린 하고 있는 아이들을 소재로 선택하였고 시의 처량함을 더 부각시켰다. 그러나 사지마는 소월과 달리 일본군의 침략과 군벌들의 횡포에 분개하였음을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IV. 김소월과 서지마의 시의 성과와 의의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김소월과 서지마의 시세계에 나타난 정서적 특징을 사랑, 자연, 현실인식에 대해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본고의 첫 출발은 김소월과 서지마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고는 먼저 두 시인이 처했던 시대상황을 바탕으로 생애와 배경, 성격 등 여러 방면을 두루 찾아 비교 분석했다. 비록 국적이 다른 두 시인이었지만, 본고의 연구 결과 두 시인은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본 장에서는 두 시인의 활동한 시대상황과 생애와 배경, 성격 등을 정리하고 김소월과 서지마 시의 성과와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김소월과 서지마는 1920년대에 활동하였던 시인으로서 양국의 신시의 발전에 대한 큰 영향을 미쳤던 시인이었다. 두 시인의 생애를 살펴보면 김소월의 조부는 광산업을 해서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외가집에서 장손으로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자랐다. 김소월이 네 살 때 숙모 계획영이 시집 와서 소월의 옆집에서 19년을 같이 살았다. 김소월은 유년기에 숙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이러한 경험은 소월의 문학적 자양이 되었다.

그러나 김소월은 일본인들이 행한 폭행의 여파로 정신적 질환을 갖게 된 아버지로 인해 열등감에 빠지게 되었다. 김소월은 당시 일제의 잔혹한 수탈과 핍박이라는 시대적 아픔과 함께 아버지의 병으로 가슴에 한이 맺혔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는 오산학교에서 스승 김억을 만나 시 지도를 받으며 자신의 시적 천분을 드러냈다. 그의 생애를 살펴본 결과 김소월 시에 한은 단순히 개인적이 ‘한’보다 나라를 걱정하는 굳은 의지와 일제의

탄압에 대한 적대감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지마도 소월과 같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당시 갑부였던 아버지의 외아들로 태어나 성장했다. 서지마는 유명한 경제인이 되기 위해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하였지만 러셀에 심취해 결국 영국으로 건너왔다. 서지마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입학은 그를 영국 낭만주의와 케임브리지에 학풍에 압도시켰다. 이로 인해 서지마는 원래의 포부와는 전혀 다른 시인으로 변모해 활동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 서지마는 임희음을 만나 본격적으로 낭만적인 시인이 되었다. 임희음과 만나게 된 것은 그의 시에 있어서 또 하나 큰 전환점이 되었다.

김소월과 서지마의 생애와 성장배경을 살펴본 결과 두 시인이 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소월은 어렸을 때부터 숙모 계획영의 옛날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다. 유년기 이러한 경험은 소월이 시를 창작할 때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소월은 오산학교에 다닐 때 스승 김억과 만나고부터 본격적인 시 창작 활동을 시작하였다. 소월의 성장배경을 살펴본 결과, 소월은 어릴 때부터 문인이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지마의 생애를 보면 그는 경제인이 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갔으나 러셀에 심취해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 입학하였다. 케임브리지에 있는 동안 서지마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시인이 될 수 있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열렬한 사랑에 빠지면서 서지마는 본격적으로 시인이 되었다.

김소월은 아버지가 일본인들이 행한 폭행으로 인해 실성이 되면서부터 시에 '한'의 정서를 많이 드러내고 있었다. 반면 서지마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사랑에 대한 즐거움과 그리움 등의 정서를 시작품에 많이 드러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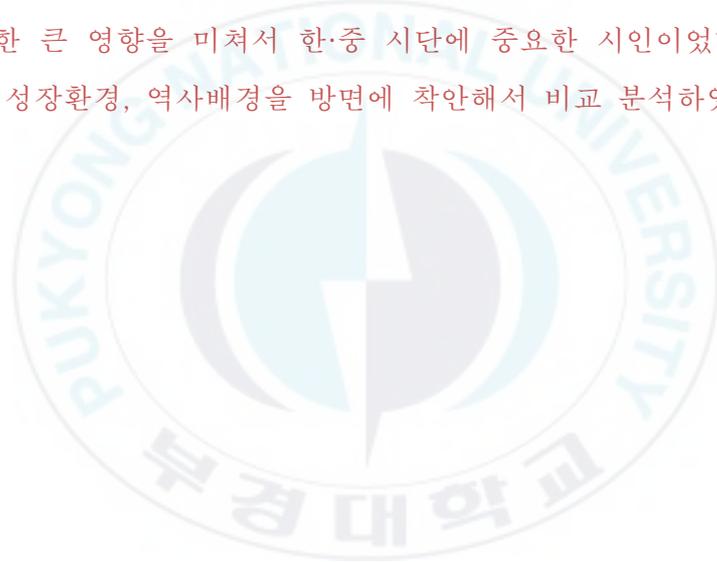
두 시인이 한·중을 대표하는 현대시 시인으로서 창작 활동을 하였지만 서로의 시 세계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김소월의 시세계는 ‘한’이라는 정서가 주로 나타나는 반면에 서지마는 사랑의 추구하고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주로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생애도 한 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면 역사 배경도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두 시인 처했던 1920년대는 한·중 양국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있어 큰 전환기가 된 시기였다. 한국은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식민지가 되었고, 중국은 서국열강과 일본의 침략으로 반식민지·반봉건사회가 되었다. 이 때 활동했던 김소월과 서지마의 시 창작에 당시 사회의 역사적배경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김소월의 성장 배경으로 인해서 그의 시에는 ‘한’이라는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반면에 서지마는 사랑을 만나게 되면서 사랑에 대한 설레임과 그리움을 시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중국은 반식민지, 반봉건사회로 되고 나서 두 시인의 시세계에 대해 큰 영향을 주었다. 조국의 상실, 집 잃음 등의 동질성은 김소월의 시에 더 강렬하게 ‘한’이라는 정서를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지마의 시 창작 초기에 보면 사랑에 대한 즐거움이라는 정서를 표현하였는데 창작 후기에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조국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안타깝다는 정서를 많이 표현을 하였다.

김소월은 흔히 국민시인, 민족시인이라 평가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부터 그의 시는 읽혀져 왔다. 그는 한국의 전통적인 ‘한’을 노래한 시인으로 유명하다. 또한 사랑하는 ‘님’에 대한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 고향, 조국을 빼앗기고 나라의 상실과 절망을 드러내고 당대에 대한 저항의지를 표현하였다. 그의 작품집은 전통적 정서를 뛰어난 언어 감각으로 노래를 하였고, 당시 시단의 수준을 한층 향상 시켰다. 반면 서지마는 중국 고시나 서양시의 우수한 점을 접목하여 중국의 현대시가 발전

하기 힘들 시기에 나아갈 방향을 뚜렷하게 제시해 주었으며, 현대시의 발전에 대한 큰 영향을 미쳤다. 사랑에 대해서는 그리움의 정서를 노래하는 반면 조국과 관련해서는 반식민지, 반봉건에 빠진 국민들에 있어서 저항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상 김소월과 서지마는 한·중의 근대시의 초석을 다진 시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그들 시에 나타나는 시의 정서적 특징과 시적 세계관 및 당대 현실에 대한 시적 대응의 모습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김소월과 서지마는 비록 국적이 다르지만 동시대에 한국과 중국에서 활동하여 현대시에 발전에 대한 큰 영향을 미쳐서 한·중 시단에 중요한 시인이었다. 두 시인의 생애와 성장환경, 역사배경을 방면에 착안해서 비교 분석하였다.



V. 결 론

이상으로 192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시인 김소월과 중국시인 서지마의 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중국은 5.4운동을 계기로 한국은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각각 현대문학과 근대문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본고는 김소월과 서지마의 시에 나타난 사랑, 자연, 현실인식의 의미를 비교하였다.

김소월과 서지마는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두 시인은 같은 시기에 태어나고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리고 집안에서 정혜준 여인과 혼인을 하고, 가족과의 불화로 집을 떠나 살았다. 작가로서 두 시인은 동시대에 두 나라에서 서구시를 수용해 근대시의 초석을 다졌다. 또 두 시인은 안타깝게도 비슷한 시기에 요절했다는 점에서도 유사점이 있다.

하지만 각 시인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분명 그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록 김소월과 서지마가 서로 국적은 달랐지만 현재 그들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근대시의 초석을 다진 서정시 시인으로 평가된다.

본고는 비록 김소월과 서지마 사이에는 비록 직접적인 영향 관계는 없지만 서정시 창작과 그들의 시세계에 투영된 사랑, 자연, 현실의 인식, 그리고 현실 인식에 대한 상호비교를 시도했다.

먼저 II장에서는 예비적 고찰을 위해 1920년대 한국의 근대시와 김소월의 관계와 동시대 중국의 근대시와 서지마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1920년대 한국은 애국계몽기 이후 서구문학의 유입이 구체화되면서 전통적 가치질서에 충격을 가했던 시기였다. 또한 3·1운동의 민족저항이 실패하자 식민지 현실은 더욱 좌절과 암울한 분위기로 전락한 시기이다. 얼마

간의 일제의 유화정책이 문화적 여건을 호전시켰다고는 하나 문학적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20년대의 시들은 비애와 절망적인 주제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김소월은 서구 시의 형식에 전통적인 민요의 율조와 토속적인 언어를 가미함으로써 한국인의 정서적 특질을 표현해냈다. 그는 조국의 비극적인 현실보다 한민족의 정한(情恨)을 시로 형상화함으로써 현대시사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1920년대 중국은 서구 문물의 대량유입으로 정치, 경제, 문화에 걸쳐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변혁이 끊임없이 일어난 시기였으며 혼란 그 자체였다. 비록 1919년도에 있었던 중국 5·4운동이 실패했지만 이 혁명운동을 계기로 신문학이 확정되는 계기를 이루었다. 이러한 시기에 활동한 서지마는 중국 현대시가사에서 1920년대 중국 현대 자유시를 완성한 시인으로 중국 현대 시인, 산문가, 신월파 대표 시인으로 중국 문단에서 중요한 자리를 잡은 시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Ⅲ장에서는 두 시인의 작품을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님'과 사랑에 나타난 정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김소월은 조선 민족의 가슴 속에 맺힌 사랑과 외로움 그리고 슬픔과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이다. 때문에 그의 작품에는 이별과 한의 정서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서지마의 작품에는 그리움과 애원의 정서가 담겨 있었다. 서지마가 상상하는 낭만적인 사랑과는 달리 그의 사랑은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의 것으로 그리움과 애원만이 작품에 투영되고 있었다.

둘째, 두 시인의 자연 인식과 세계관을 살펴보았다. 일찍이 자연을 스스로 생성하고 움직이는 능동적인 주체로 보는 동양적 자연관은 자연을 신의 피조물로 인간에 의해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서양의 자연관은 차이가 있다. 두 시인은 동양적 자연관의 전통을 이었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김소월은 자연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비극적 세계관을 작품에 담고 있음이 밝혀

졌다. 김소월의 시에 담긴 자연은 민족적 대표성을 지니며 한민족에게 고향을 연상시킨다. 김소월은 그러한 자연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며 상실된 고향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작품에 담고 있었다. 서지마는 자연에 동화하고 순응하는 자세를 취하는 태도를 작품에 표현하고 있었다. 그는 도시에 살고 있더라도 자주 자연을 찾아간다면 인간은 자연의 품에서 활력과 건강을 회복할 것이라 믿었다. 이는 김소월이 자연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태도와 차이를 보였다.

셋째, 두 시인의 현실인식과 그에 대한 시적 대응을 살펴보았다. 김소월은 당대의 비극적 현실을 직시하고 고향상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유교적 동포애를 작품에 담아냈다. 1920년대 한국시단은 암담한 현실의 슬픔과 절망적인 감정을 표현했다. 그러나 김소월은 나라를 잃은 현실을 인식하고 개인으로서의 한스러움과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의 설움을 더한 현실의 안타까움을 유교적 동포애를 담아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그는 조선의 역사로부터 민족적 혼을 찾아냄으로써 민중들의 힘이 되어주길 기대했다. 서지마도 김소월과 마찬가지로 당대 조국의 주권 상실에 대한 슬픔과 저항을 담았다는 부분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서지마는 김소월과 달리 일본군의 침략과 군벌들의 횡포에 분개했다. 그는 혼란기 현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그것을 인도주의적 민족애로 감싸는 태도를 시작품에 담고 있었다.

본 연구는 한·중 대표적인 서정시 시인 김소월과 서지마의 서정시에 나타난 자연, 사랑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인식에 대해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비교연구는 한·중 문학에 더 깊은 발전을 위해 의미도 갖게 될 것이다. 비록 미흡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겠지만 앞으로 한·중 현대시를 다양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상호 비교함으로써 한·중 비교문학 연구에 일조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1. 기본자료

<김소월 자료>

- 김소월, 『진달래꽃』, 매문사, 1925.
_____, 『김소월 시집』, 청목, 2001.
김용직, 『김소월전집』, 서울대학교출판사, 1996.

<서지마 자료>

- 徐志摩, 『徐志摩全集』, 上海出版社, 1988.
_____, 『徐志摩诗选』, 四川文艺出版社, 1991.
윤계 엮음, 『志摩的诗』, 中国华侨出版社, 2015.
이경하, 『쉬즈모 시선』, 지식을만드는지식, 2010.

2. 국내 단행본

- 계희영, 『약산 진달래는 우런 붉어라』, 문학세계사, 1982.
김동리, 『문학과 인간』, 청춘사, 1952.
김시준, 『중국현대문학사』, 지식산업자, 1992.
김용필 편, 『김소월 전집』, 문정사, 1981.
김용직, 『김소월전집』, 서울대학교출판사, 1996.
_____, 주해, 『원본 김소월 시집』, 깊은 샘, 2007.

- 김용옥,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통나무, 1989.
- 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
- 김영철, 『김소월』, 건국대학교 출판부, 1983.
- 김열규 외, 『국문학론문선』, 민중서관, 1977.
- _____, 『김소월 연구』, 새문사, 1986.
- 김열규·산동옥 편, 『김소월연구』, 새문사, 1982.
- 김학주, 『중국문학사』, 신아사, 2000.
- 김한호, 『슬픈 시인의 노래』, 문예마당, 2000.
- 박두진, 「한국현대시론」, 일조각, 1970.
- _____, 「김소월의 시」, 『한국현대시론』, 일조각, 1973.
- 서정주, 「소월 시에 있어서의 정한의 처리」,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59.
- 서우석, 『시와 리듬』, 문학과 지성사, 1981.
- 성기조, 「소월의 산유화에 관하여」, 『한국현대시인 연구』, 동백문화사, 1990.
- 송건호, 『한국현대시론』, 한국신학연구소, 1979.
- 송명희, 「소월 시에의 반성」, 『세계의 문학』, 1979.
- 신동욱, 『김소월』, 문학과 지성사, 1980.
- 신현락, 『한국 현대시와 동양의 자연관』, 한국문학사, 1998.
- 오세영, 『김소월, 그 삶과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_____, 「한의 논리와 그 역설적 의미」, 『문학사상』, 문학사상사, 1976.
- 윤병로, 『한국 근·현대 문학사』, 명문당, 1991.
- 윤영천, 「소월 시의 현실인식」, 한길사, 1982.
- 하희주, 「전통의식과 한의 정서」, 『현대문학』, 현대문학사, 1960.

- 홍석표, 『중국현대문학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 황수기, 『중국현대문학발전사』, 범우사, 1991.
- 장기근, 『노자 25장』, 삼성출판사, 1986.

3. 국외 단행본

- 陳敬之, 『新月及其重要作家』, 成文出版社, 1980.
- 顧永棣, 『徐志摩詩全集』, 學林出版社, 2002.
- 高恒文·桑农, 『徐志摩与他生命中的女性』, 天津人民出版社, 1999.
- 劉介民, 『類同研究的再發現—徐志摩在中西文化之間』,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 梁秋实, 『徐志摩全集』, 传记文学出版社, 1980.
- 毛 迅, 『徐志摩論稿』, 四川大學出版社, 1991.
- 邵華強, 『中國現代文學史上冊』, 知識產權出版社, 2011.
- , 『徐志摩研究資料』, 陝西人民出版社, 1988.
- 宋益喬, 『徐志摩傳』, 北岳文藝出版社, 1990.
- 宋益喬, 『徐志摩的女性情感世界』, 中国致公出版社, 2001.
- 王永生, 『中國現代文論選』, 貴州人民出版社, 1984.
- 許世旭, 『中國現代詩研究』, 明文堂, 1992.
- 陽匡漢, 劉福春, 『中國現代詩論』, 花城出版社, 1985.
- 杨新敏, 『中国文化巨人全书7—徐志摩』, 国家出版社, 2002.
- 郁达夫, 『回忆徐志摩』, 香港文学研究出版社, 1980.
- 徐志摩, 『我所知道的康桥』, 中国画报出版社, 2015.
- 周伯乃, 『早期新诗中的批评』, 台湾学津书店, 1980.

4. 학위논문 및 평론

- 가 구, 「김소월과 서지마의 비교연구 - 낭만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10.
- 구광범, 「서지마의 생평과 사상간론」, 화동사범대 박사학위논문, 1996.
- 권혜경, 「서지마문학연구-주제사상과 예술성을 중심으로-」, 한국의외국어대 박사학위논문, 2002.
- 김 역, 「김소월의 행장」, 『신동아』 동아일보사, 1935.
- _____, 「소월의 생애와 시가」, 『삼천리』, 삼천리사, 1935.
- _____, 「소월의 생애」, 『여성』, 삼천리사, 1939.
- _____, 「소월의 기억」, 『박문』, 박문출판사, 1939.
- _____, 「요절한 박행 시인 김소월에 대한 추억」, 『조선중앙일보』, 1935.
- 김동인, 「내가 본 시인 - 김소월군을 논함」, 『조선일보』, 1929.
- 김상호, 「서지마 시 연구」, 臺灣逢甲大 석사학위논문, 1992.
- 김종길, 「詩 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심상』, 심상사, 1974.
- 김종철, 「서지마 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5.
- 노윤환, 「김소월 시의 전통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3.
- 도현경, 「서지마 산을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2000.
- 류소령, 「백석과 서지마 시에 나타난 사랑과 연민 비교」, 아주대 석사학위논문, 2015.
- 만정정, 「김소월과 서지마의 시세계 비교연구 - 자연과 사랑을 중심으로

- 로」,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9.
- 박종화, 「문한 1년을 추억하야」, 『개벽』, 개벽사, 1923.
- 박선희, 「서지마 시의 예술성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9.
- 백승철, 「한의 시학」, 『심상』, 심상사, 1974.
- 박찬혜, 「서지마 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86.
- 여 정, 「서지마와 김소월 시의 비교 연구」, 덕성여대 석사학위논문, 2015.
- 왕해륜, 「한국의근대시인 김소월과 중국 근대시인 서지마에 대한 비교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75.
- 이기문, 「소월 시의 언어에 대하여」, 『한국문학의 현대적 해석』,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8.
- 이광수, 「우리 문예의 방향」, 『조선문단』, 조선문단사, 1921.
- 이명재, 「소월 시의 심층과 시대 인식-소월의 재조명」, 『식민지 시대의 시인 연구』, 시인사, 1985.
- 이소정, 「서지마 시의 상상세계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옥연, 「곽말약·서지마 문학의 근대의식 비교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5.
- 이재호, 「영·불시가 한국시가에 끼친 영향고」, 전규태 편, 『비교문학-이론, 방법, 전망』, 세종출판공사, 1973.
- 임영환, 「김소월 시 연구-한과 진달래꽃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위, 1986.
- 정미영, 「서지마 시의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2010.
- 조동구, 「김소월론-시에 나타난 소월의 의식세계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1.
- 조동일, 「현대시에 나타난 전통적 율격의 계승」, 『우리문학과 의 만남』,

1988.

조창환, 「김소월시의 운율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6.

陳 琳, 「한·중 근대시에 나타난 노장사상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13.

진 함, 「김소월과 서지마의 서정시 비교연구」, 대진대 석사학위논문,
2012.

최동호,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물의 심상과 의미 연구」, 고려대 박사학
위논문, 1981.

최용노, 「서지마 애정시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3.

최종옥, 「서지마 산문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97.

최하림, 「식민지 시대 시인의 초상」, 『한국현대시문학대계6-김소월』,
지식산업사, 1980.

